

<역주>

『舊唐書』 권6, 則天皇后本紀 譯註*

이진선**

【일러두기】

이 역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년도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역사기초자료연구) “동아시아 속의 한국고대사 비교사료학 기초 연구: 구당서 본기를 기본 텍스트로”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에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에 보이는 한중관계사 사료를 본문에서 보충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동시기 唐과 주변국의 관계사 사료를 필요에 따라 보충하였다. 『구당서』 측천황후본기에는 日干支의 누락이 많은데, 『新唐書』와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또한 『구당서』 측천황후본기에서 누락된 月의 기사는 『신당서』 측천황후본기와 『자치통감』에 의거해 필요에 따라 보충하였다.

· []는 본문에서 번역에 대한 원문을 병기하거나, 보충 사료를 넣을 경우에 사용하였다.

· ()는 본문에서 번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하였다.

· 改元이 많아 측천무후본기의 연호는 편의상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 『구당서』 권6, 측천황후본기, 中華書局標點本, 2012, 115~134쪽을 저본으로 하였다.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수료

則天皇后 武氏는諱가 墨이고, 并州 文水(縣)¹⁾ 사람이다. 부친 [武]士 彊은 隋 大業 연간(605~617) 말에 鷹揚府隊正이 되었다. 高祖가 汾州와 晉州에 행군할 때 매번 무사학의 집에 머물며 쉬었다. [무사학은] 義旗가 처음 일어날 때 [의군을] 따라 京城을 평정하였다. [太宗] 貞觀 연간(627~649)에 여러 차례 승진하여 工部尙書·荊州都督이 되었고, 應國公에 봉해졌다.²⁾

애초에 무측천이 14세였을 때 태종은 그녀가 용모와 몸가짐이 아름다운 것을 듣고는 불러 입궁시켜 才人³⁾으로 삼았다. 태종이 붕어하자 마침내 비구니가 되어 感業寺에 거처하였다. 大帝(즉 고종)가 감업사에서 그녀를 보고는 다시 불러 입궁시키고 昭儀에 배수하였다.⁴⁾ 이때 황후 王氏와 良娣 蕭氏가 자주 武昭儀와 충애를 다투어 서로 무소의를 참휘하였으나 황제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를 宸妃로 올렸다. 永徽 6년(655) [10월 기유일] 왕황후를 폐위하고 [을묘일] 무신비를 세워 황후로 세웠다.⁵⁾ [上元 원년(674) 8월] 高宗이 天皇이라고 칭하자 武后도 天后라고 칭하였다.⁶⁾ 무후는 평소에 지모가 많았고 아울러 文史를 섭렵하였다. 황제가 顯慶 연간(656~661) 이후부터 風疾로 많이 괴로워하여 百司의 表奏는

1)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東道, 北京太原府 조, 1480~1482쪽. 이에 따르면 병주는 晉陽, 太原, 文水 등 16현을 거느리고, 현종 개원 11년에 北道를 두어 태원부로 고쳤다.

2) 무사학에 대해서는 『구당서』 권58, 武士彊傳, 2316~2317쪽; 『新唐書』 권206, 外戚, 武士彊傳, 5835~5836쪽 참조.

3) 才人은 女官의 명칭으로 대개 후궁의 칭호로 쓰였다. 한대에 처음 두었으며 당대에는 정5품이었다가 이후 정4품으로 올렸다.

4) 『신당서』 권76, 后妃上, 高宗則天武皇后傳, “及帝崩, 與嬪御皆爲比丘尼. 高宗爲太子時, 入侍, 悅之. 王皇后久無子, 蕭淑妃方幸, 后陰不悅. 它日, 帝過佛廬, 才人見且泣, 帝感動. 后廉知狀, 引內後宮, 以撓妃寵”(3474쪽).

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영휘 6년 10월 조, 56쪽.

6)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상원 원년 8월 조, 99쪽.

모두 天后에게 맡겨 살피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안에서 내궁에서 國政을 보좌한지 수십 년에 위세가 황제와 다를 바가 없어 당시 사람들이 ‘二聖’이라고 일컬었다.⁷⁾

弘道 원년(683) 12월 정사일 대제가 봉어하니,⁸⁾ [갑자일] 황태자 [李] 顯(즉 中宗)이 즉위하고 天后를 높여 황태후로 하였다.⁹⁾ [무후는] 이미 찬탈하려고 하여 이날 스스로 臨朝稱制하였다. 경오일 澤州刺史·韓王 [李] 元嘉를 더하여 太尉에 제수하고, 豫州刺史·滕王 [李] 元嬰을 開府儀同三司로, 絳州刺史·魯王 [李] 靈夔을 太子太師로, 相州刺史·越王 [李] 貞을 太子太傅로, 安州都督·紀王 [李] 愼을 太子太保로 삼았다.¹⁰⁾ 이원가 등의 지위가 존귀하고 명망이 높아 그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웠으므로 虛位를 더해 주어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갑술일 劉仁軌가 尚書左僕射, 岑長倩이 兵部尚書, 魏玄同이 黃門侍郎이 되었고, 모두 예전과 같이 政事를 주재하였다. 劉齊賢이 侍中이 되고, 裴炎이 中書丞이 되었다.

嗣聖 원년(684) 봄 정월 갑신일¹¹⁾ 초하루 연호를 고쳤다.

7) 『신당서』 권4, 則天皇后本紀에서는 현경 이후 무후의 參政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고종이 이를 몰래 폐지하려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전한다.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高宗自顯慶後, 多苦風疾, 百司奏事, 時時令后決之, 常稱旨, 由是參豫國政. 后既專寵與政, 乃數上書言天下利害, 務收人心, 而高宗春秋高, 苦疾, 后益用事, 遂不能制. 高宗悔, 陰欲廢之, 而謀洩不果. 上元元年, 高宗號天皇, 皇后亦號天后, 天下之人謂之‘二聖’”(81쪽).

8) 『資治通鑑』 권203, 弘道 원년 12월 조, “丁巳, 改元, 赦天下 …… 是夜, 召裴炎入, 受遺詔輔政, 上崩於貞觀殿. 遺詔太子柩前即位, 軍國大事有不決者, 兼取天后進止”(6416쪽).

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82쪽; 『자치통감』 권203, 弘道 원년 12월 조, 6416쪽.

10) 이원가 등의 임명은 『구당서』와 『신당서』 측천황후본기에서는 경오일, 『자치통감』에서는 갑자로 기록되어 있다.

11) 『자치통감』에서는 『구당서』 측천황후본기와 같이 갑신일로(6417쪽), 이와 달리

2월 무오일 황제를 폐위하여 廬陵王으로 삼아 다른 곳에 유폐시키고, 이에 攄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하사하였다.¹²⁾ 기미일 豫王 [李]輪(즉 睿宗)¹³⁾을 황제로 세우고, 別殿에 거처하게 하였다.¹⁴⁾ [기미일]¹⁵⁾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文明으로 연호를 고쳤다. 황태후가 이에 臨朝稱制하였다. 경오일 皇太孫 [李]重照를 폐위하여 庶人으로 삼았다.¹⁶⁾ [정축일]¹⁷⁾ 太常卿·兼豫王府長史 王德眞이 侍中이 되고, 中書侍郎·豫王府司馬 劉禕之가 同中書門下三品이 되었다.

[문명 원년(684)] 3월 서인 [李]賢이 巴州에서 死하였다.¹⁸⁾

『신당서』 측천황후본기에서는 기미일로 기록되어 있다(82쪽).

- 12) 중종은 광택 원년 정월 韋皇后의 부친 韋玄貞을 侍中으로 삼으려 했다가 무측천의 분노를 사 폐위되었다(『자치통감』 권203, 광택 원년 정월 및 2월 조, 6417쪽). 이후 聖曆 원년(698) 東都로 소환되었고 황태자에 책립되어 예전과 같이 이름을 顯이라 하였다.
- 13) 豫王 李輪은 본래 이름이 旭輪이었는데 總章 2년 11월 冀王으로 徙封되면서 외자 輪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永淳 2년 7월 相王에서 다시 豫王으로 改封하고, 또 이름을 攄으로 바꾸었다. 『자치통감』과 『신당서』 측천황후본기에서는 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다.
- 14) 『자치통감』 권203, 광택 원년 2월 조, “立雍州牧豫王旦爲皇帝. 政事決於太后, 居睿宗於別殿, 不得有所預”(6418쪽).
- 1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광택 원년 2월 조, 82쪽. 『자치통감』에서는 임자일로 기록되어 있으나(6418쪽) 2월에는 임자일이 없으므로 기미일(7일)이 옳을 것이다.
- 16) 『신당서』 측천황후본기와 『자치통감』에서는 모두 경신일로 전한다. 『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2월 조, “廢皇太孫重照爲庶人, 命劉仁軌專知西京留守事. 流韋玄貞於欽州”(6418쪽).
- 1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사성 원년 2월 조, 82쪽; 『자치통감』 권203, 사성 원년 2월 조, 6419쪽.
- 18) 이현의 사망에 대해서는 날짜의 차이가 있으나 『신당서』와 『자치통감』에 보다 상세히 전한다.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문명 원년 2월 조, “庚申, 廢皇太孫重照爲庶人, 殺庶人賢於巴州”(82쪽); 『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3월 조, “丘神勳至巴州, 幽故太子賢於別室, 逼令自殺. [考異曰, ‘則天實錄, 賢死在二月丘神勳往巴州下. 舊本紀在三月. 唐曆, 遣神勳·舉哀·追封皆有日. 今從之.』] 太后乃歸罪

여름 4월 [정사일]¹⁹⁾ 등왕 이원영이 흥거하였다. [신유일] 畢王 [李]上金を澤王으로, 葛王 [李]素節을 許王으로 고쳐 봉하였다.²⁰⁾ 정축일 여릉왕 이철을 均州로 옮겼다[遷].²¹⁾

윤5월 禮部尙書 武承嗣를 同中書門下三品로 삼았다.

가을 7월 [을축일] 突厥 [阿史那]骨咄祿과 [阿史德]元珍이 朔州를 침략[寇]하자, 左武衛大將軍 程務挺에게 명하여 이를 막게 하였다.²²⁾ [신미일]²³⁾ 혜성이 서북방에서 보였는데, 길이가 2장 여였고 33일이 지나서야 겨우 소멸하였다.

[8월 경인일 天皇大帝를 乾陵에 장사지냈다.]²⁴⁾

9월 [갑인일] 천하에 대사를 내리고 光宅으로 연호를 고쳤다. 旗幟는 고쳐서 금색을 따르게 하고, 자색으로 꾸미며, 여러 가지 무늬로 그렸다. 東都를 神都로 고쳤다. 또 尙書省 및 諸司의 官名을 고쳤다. 처음으로 右肅政御史臺官員을 두었다.²⁵⁾ [정축일]²⁶⁾ 죽은司空 李勣의 손자 柳州司

於神勣, 戊戌, 舉哀於顯福門, 貶神勣爲豐州刺史. 己亥, 追封賢爲雍王”(6419쪽).

1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문명 원년 4월 조, 83쪽.

2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문명 원년 4월 조, 83쪽; 『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4월 조, 6420쪽. 또한 『신당서』 측천황후본기에 의하면, 지난 달 3월 정해일에 上金を 畢王, 素節을 葛王으로 徙封하였다(82쪽).

21) 여릉왕 이철은 폐위된 중종이다. 같은 달 앞서 계유일에 房州로 옮겼다가 정축일에 다시 均州로 옮긴 것이다. 『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4월 조, 6420쪽.

2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문명 원년 7월 조, “突厥寇朔州, 左武衛大將軍程務挺敗之”(83쪽). 이후 정무정은 같은 해 9월 單于道安撫大使에 임명되어 돌궐에 대비하라는 명을 받았다(『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9월 조, 6421쪽).

2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문명 원년 7월 조, 83쪽.

2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문명 원년 8월 조, 83쪽.

2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문명 원년 9월 조, “旗幟尙白, 易内外官服青者以碧”(83쪽); 『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9월 조, “又改尙書省爲文昌臺, 左·右僕射爲左·右相, 六曹爲天·地·四時六官. 門下省爲鸞臺, 中書省爲鳳閣, 侍中爲納言, 中書令爲內史, 御史臺爲左肅政臺, 增置右肅政臺. 其餘省·寺·監·率之名, 悉以義類改之”(6421쪽).

馬 徐敬業이 거짓으로 揚州司馬를 칭하고 長史 陳敬之를 살해하여 揚州를 거점으로 군대를 일으켜 스스로 上將이라 칭하고 匡復(즉, 이씨 황실의 회복)을 명분[辭]으로 삼았다.

겨울 10월 [계미일] 楚州司馬 李崇福이 관할 세 현을 거느리고 이경업에게 항응하였다.²⁷⁾ [갑신일] 명령을 내려 左玉鈐衛大將軍 李孝逸을 大總管으로 삼아 병사 30만을 이끌고 토벌하게 하였다.²⁸⁾ [병신일]²⁹⁾ 內史 裴炎을 살해하였다.³⁰⁾ 정유일 이경업 부친의 관작을 追削하고 그 本姓 徐氏로 되돌렸다.

[11월 신해일 左鷹揚大將軍 黑齒常之를 江南道大總管으로 삼고 敬業을 토벌하게 하였다.]³¹⁾

12월 전임 中書令 薛元超가 졸하였다. [계묘일] 左威衛大將軍 程務挺을 살해하였다.³²⁾

26) 『신당서』 권4, 문명 원년 9월 조, 83쪽.

27) 『신당서』 권4, 문명 원년 10월 조, “楚州司馬李崇福以山陽·安宜·鹽城三縣歸于敬業”(83쪽).

28) 『신당서』 권4, 문명 원년 10월 조, “左玉鈐衛大將軍梁郡公孝逸爲揚州道行軍大總管, 左金吾衛大將軍李知十爲副, 率兵三十萬以拒李敬業”(83쪽).

29) 『신당서』 권4, 문명 원년 10월 조, 84쪽; 『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10월 조, 6427~6428쪽.

30) 배염은 서경업의 반란 진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무측천은 배염이 재상이 된 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황제를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노리고 있다고 여겼다. 이에 무측천은 서경업과 결탁해 모반하려 했다는 죄명을 씌워 배염을 감옥에 가두고 살해하였다(任士英 저·류준형 역, 『황제들의 제국사』, 푸른역사, 2016, 104쪽).

31) 『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11월 조, 6429쪽. 이 사건은 『신당서』 권4, 측천황후 본기, 문명 원년 11월 조, 84쪽에도 전한다. 서경업의 반란은 이 달 을축일에 서경업의 장수 王那相이 서경업, 낙빈왕 등의 목을 베어 항복하면서 끝이 났다.

32) 정무정 역시 배염의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신당서』 권4, 문명 원년 12월 조, 84쪽; 『자치통감』 권203, 문명 원년 12월 조, “初, 裴炎下獄, 單于道安撫大使·左武衛大將軍程務挺密表申理, 由是忤旨. 務挺素與唐之奇·杜求仁善, 或譖之曰, ‘務

垂拱 원년(685) 봄 정월 [정미일 초하루]³³⁾ 서경읍을 평정하여 천하에 대사를 내리고 연호를 고쳤다. [무진일] 劉仁軌가 흥거하였다.³⁴⁾

3월 [병진일]³⁵⁾ 여릉왕 이철을 房州로 옮겼다. [신미일]³⁶⁾ 친히 편찬한 『垂拱格』을 천하에 반포하여 내려 보냈다.³⁷⁾

여름 4월 [병자일]³⁸⁾ 內史 喬味道를 靑州刺史로 좌천시켰다. [(신라 신문왕 5년) 望德寺가 완성되었다].³⁹⁾

5월 秋官尙書 裴居道가 內史가 되고, 納言 王德眞이 象州로 유배되고, 冬官尙書 蘇良嗣가 납언이 되었다.⁴⁰⁾ [임술일] 조서를 내려 9품 이상

挺與裴炎·徐敬業通謀。癸卯，遣左鷹揚將軍裴紹業即軍中斬之，籍沒其家。突厥聞務挺死，所在宴飲相慶。又爲務挺立祠，每出師，必禱之”(6432~6433쪽).

3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정월 조, 84쪽; 『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정월 조, 6433쪽.

3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정월 조, 84쪽; 『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정월 조, “戊辰，文昌左相·同鳳閣鸞臺三品樂城文獻公劉仁軌薨”(6433쪽).

3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3월 조, 84쪽; 『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3월 조, 6434쪽.

3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3월 조, 84쪽; 『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3월 조, 6434쪽.

37) 『구당서』 권50, 刑法志, “則天又敕內史裴居道·夏官尙書岑長倩·鳳閣侍郎韋方質與刪定官袁智弘等十餘人，刪改格式，加計帳及勾帳式，通舊式成二十卷。又以武德已來·垂拱已前詔敕便於時者，編爲新格二卷，則天自製序。其二卷之外，別編六卷，堪爲當司行用，爲垂拱留司格。時韋方質詳練法理，又委其事於咸陽尉王守慎，又有經理之才，故垂拱格·式，議者稱爲詳密。其律令惟改二十四條，又有不便者，大抵依舊”(2143쪽); 『唐會要』 권39, 定格令, “至垂拱元年三月二十六日，刪改格式，加計帳及勾帳式，通舊式成二十卷。又以武德以來，垂拱已前詔勅，便于時者，編爲新格二卷……”(820~821쪽).

3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4월 조, 84쪽.

3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신문왕 5년(685) 4월 조, “望德寺成”. 한편 『삼국유사』 권5, 感通7, 眞身受供 조, “長壽元年壬辰孝昭即位，始創望德寺將以奉福唐室。後景德王十四年望德寺塔戰動，是年有安史之亂，羅人云，‘爲唐室立茲寺，宜其應也’”라고 하여, 장수 원년(692) 망덕사 창건 사실을 전한다. 두 망덕사가 다른 사찰인지, 아니면 사서에 기록된 연대의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 내외 문무관 및 백성이 모두 스스로 천거하게 하였다.⁴¹⁾

이 해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었다.⁴²⁾

[6월 天官尚書 韋待價를 同鳳閣鸞臺三品으로 삼았다.]⁴³⁾

[9월 정묘일 揚州 땅에 毛가 자라났다.]⁴⁴⁾

[11월 계묘일 韋待價를 燕然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突厥을 공격하게 하였다.]⁴⁵⁾

[수공] 2년(686) 봄 정월 황태후가 조서를 내려 황제에게 조정[政]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황제는] 이미 황태후의 본심[實意]이 아니라고

4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5월 조, 85쪽에 의하면, 병오일에 배거도가 납언이 되고, 정미일에 왕덕진이 상주로 유배되고, 기유일에 소량사가 守納言이 되었다. 한편, 『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5월 조, 6434쪽에서는 배거도가 내사가 되고 왕덕진이 유배된 일까지가 병오일로 기록되어 있다.

41) 『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5월 조, 6435쪽.

4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5월 조에 “임술일, 가뭄이 들어 죄수를 검열하였다 [慮囚]”(85쪽)라고 한다.

4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6월 조, 85쪽. 『자치통감』에 의하면, 이 달에는 同羅와 僕固 등의 諸部가 叛하자 左豹韜衛將軍 劉敬同을 보내 河西의 騎士를 동원하여 居延海로 나가 그들을 토벌하게 하니, 동라와 복고 등이 모두 敗散하였다. 敕을 내려 安北都護府를 同城에 僑置하여 투항자를 받아들이게 하였다(『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6월 조, 6435쪽).

4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9월 조, 85쪽. 地生毛는 백성이 勞役に 괴로우면 땅에서 자라난다는 털이다. 『자치통감』에 의하면, 이 달 정묘일에 廣州都督 王果가 반란한 요족[反獠]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6월 조, 6435쪽).

4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원년 11월 조, 85쪽. 이 일은 『자치통감』 권203, 수공 원년 11월 조, “癸卯, 命天官尚書韋待價爲燕然道行軍大總管以討吐蕃. 初, 西突厥興昔亡·繼往絕可汗既死, 十姓無主, 部落多散亡, 太后乃擢興昔亡之子左豹韜衛翊府中郎將元慶爲左玉鈐衛將軍, 兼岷陵都護, 襲興昔亡可汗押五咄陸部落”(6435쪽); 『冊府元龜』 권986, 外臣部, 征討5, “(垂拱元年)十一月命天官尚書韋待價爲燕然行軍大總管以討吐蕃”(11581쪽) 참조.

생각하여 곧 굳게 사양하였다. 이에 황태후가 예전과 같이 臨朝稱制하고, [신유일]⁴⁶⁾ 천하에 대사를 내렸다. 처음으로 都督과 刺史는 모두 京官에 준하여 어대[魚]를 차게 하였다.⁴⁷⁾

[2월 신미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⁴⁸⁾ [사신을 보내 당에 들어가 『禮記』와 文章을 奏請하였다. 則天이 담당 관청에 명하여 『吉凶要禮』를 베끼고 아울러 『文館詞林』에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글을 골라 50권으로 만들어 하사하였다.]⁴⁹⁾

3월 [무신일]⁵⁰⁾ 처음으로 朝堂에 匭를 설치하여 상서하거나 사안을 말할 경우에는 이를 듣고 넣도록 하니, 이로부터 사람들의 좋고 나쁜 사정을 대부분 모두 알았다.⁵¹⁾

여름 4월 [경진일]⁵²⁾ 岑長倩이 內史가 되었다.

4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2년 정월 조, “辛酉, 大赦, 賜酺三日, 內外官勳一轉”(85쪽).

47) 『구당서』 권45, 輿服志, 文武官服 조, “垂拱二年正月, 諸州都督刺史, 並准京官帶魚袋”(1954쪽); 『唐會要』 권31, 輿服上, 魚袋 조, “垂拱二年正月二十日敕文, 諸州都督刺史, 並准京官帶魚袋”(上海古籍出版社, 676쪽).

4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2년 2월 조, 85쪽.

4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신문왕 6년 2월 조, “遣使入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 賜之”; 『구당서』 권199상, 東夷傳, 新羅國, “垂拱二年, 政明遣使來朝, 因上表請『唐禮』一部并雜文章, 則天令所司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以賜之”(5336쪽); 『당회요』 권36, 蕃夷請經史, 수공 2년 조, “二月十四日, 新羅王金政明, 遣使請『禮記』一部, 并雜文章, 令所司寫『吉凶要禮』, 并『文館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 賜之”(777쪽);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414, 請求, 中華書局, 11721쪽; 『太平御覽』 권781, 四夷部2, 東夷2, 新羅 조, 中華書局, 3593쪽.

5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2년 3월 조, 85쪽.

51) 『자치통감』 권203, 수공 2년 3월 조, “戊申, 太后命鑄銅爲匭, 其東曰『延恩』, 獻賦頌·求仕進者投之, 南曰『招諫』, 言朝政得失者投之, 西曰『伸冤』, 有冤抑者投之, 北曰『通玄』, 言天象災變及軍機祕計者投之, 命正諫·補闕·拾遺一人掌之, 先責識官, 乃聽投表疏”(6437~6438쪽).

5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2년 4월 조, 85쪽.

[5월 병오일 배거도를 내사로 삼았다.]⁵³⁾

6월 [신미일] 蘇良嗣가 文昌左相이 되고 天官尙書 韋待價가 文昌右相이 되었는데, 모두 同鳳閣鸞臺三品이었다. [기묘일] 右肅政·御史大夫 韋思謙이 納言이 되었다.⁵⁴⁾

[가을 9월 정미일 西突厥 繼往絕可汗의 아들 斛瑟羅를 右玉鈴衛將軍으로 삼아 계왕절가한을 계승하여 5弩失畢 部落을 관리[押]하게 하였다.]⁵⁵⁾

[수공 2년 降王(즉 보장왕)의 손자 寶元을 朝鮮郡王으로 삼았다.]⁵⁶⁾

[수공] 3년(687) 봄 [윤]정월 [정묘일] 황자 [李]成義를 恆王으로, [李]隆基를 楚王으로, [李]隆範을 衛王으로, [李]隆業을 趙王으로 봉하였다.⁵⁷⁾

2월 [병진일 突厥이 昌平을 침략하니 흑치상지에게 공격하게 하였다.]⁵⁸⁾ [3월 을축일] 韋思謙이 致仕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⁵⁹⁾

여름 4월 [임술일] 裴居道가 納言이 되고,⁶⁰⁾ [5월 병인일] 夏官侍郎 張光輔가 鳳閣侍郎·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⁶¹⁾ 경오일 劉禕之가 집

5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2년 5월 조, 85쪽.

5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2년 6월 조에서는 韋思謙이 守納言이 되었다고 한다(85쪽).

55) 『자치통감』 권203, 수공 2년 9월 조, 6441쪽.

56) 『삼국사기』 권10, 고구려본기, 수공 2년 조, “以降王孫寶元爲朝鮮郡王”; 『책부원구』 권966, 外臣部, 繼襲1, “垂拱二年封藏孫寶元爲朝鮮郡王”(11358쪽).

5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3년 윤정월 조, 86쪽; 『자치통감』 권203, 수공 3년 윤정월 조, 6443쪽.

5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3년 2월 조, 86쪽.

59) 『자치통감』 권203, 수공 3년 3월 조, “乙丑, 納言韋思謙以太中大夫致仕”(6443쪽);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3년 3월 조, “乙丑, 韋思謙罷”(86쪽).

60) 『자치통감』 권203, 수공 3년 여름 4월 조, 6444쪽;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3년 여름 4월 조, 86쪽.

에서 賜死되었다.⁶²⁾

가을 8월 地官尙書 魏玄同이 檢校納言이 되었다.⁶³⁾ [交趾人 李嗣仙이 安南都護 劉延祐를 살해하고 交州를 점거하자 桂州司馬 曹玄靜이 이를 격파하였다. 이 달에 돌궐이 朔州를 침략하여 燕然道行軍大總管 흑치상지가 이를 격파하였다.]⁶⁴⁾

[9월 기묘일 虢州人 楊初成이 스스로 郎將이라 칭하고 州人을 모집해 房州에서 廬陵王을 맞이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살해되었다.]⁶⁵⁾

[10월 경자일 右監門衛中郎將 曩寶璧이 突厥과 싸워 敗績하였다.]⁶⁶⁾ [左監門衛中郎將 (曩)寶璧이 끝까지 추격하여 공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조서를 내려 흑치상지와 함께 토벌하게 하였다. 찬보벽이 홀로 진격하였다가 돌궐에게 패하니 온 군대가 전몰되었다. 찬보벽은 옥리에게 넘겨 주살되고 흑치상지는 연좌되어 공이 없어졌다.]⁶⁷⁾

61) 『자치통감』 권203, 수공 3년 5월 조, 6444쪽;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3년 5월 조, 86쪽.

62) 『자치통감』 권203, 수공 3년 5월 조, 6444~6445쪽;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3년 5월 조, 86쪽.

6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3년 8월 조, 86쪽; 『자치통감』 권203, 수공 3년 7월 조, 6445쪽.

6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8월 조, 86쪽.

6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9월 조, 86쪽.

6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10월 조, 86쪽.

67) 『삼국사기』 권44, 黑齒常之傳, “左監門衛中郎將寶璧, 欲窮追邀功, 詔與常之共討. 寶璧獨進, 爲虜所覆, 舉軍沒. 寶璧下吏誅, 常之坐無功”. 이 일은 또한 『자치통감』 권204, 수공 3년 10월 조, “庚子, 右監門衛中郎將曩寶璧與突厥骨篤祿·元珍戰, 全軍皆沒, 寶璧輕騎遁歸. 寶璧見黑齒常之有功, 表請窮追餘寇. 詔與常之計議, 遙爲聲援. 寶璧欲專其功, 不待常之, 引精卒萬三千人先行, 出塞二千餘里, 掩擊其部落. 既至, 又先遣人告之, 使得嚴備, 與戰, 遂敗. 太后誅寶璧, 改骨篤祿曰不卒祿”(6446쪽); 『구당서』 권109, 黑齒常之傳, “時有中郎將曩寶璧表請窮追餘賊, 制常之與寶璧會, 遙爲聲援. 寶璧以爲破賊在朝夕, 貪功先行, 竟不與常之謀議, 遂全軍而沒. 尋爲周興等誣構, 云與右鷹揚將軍趙懷節等謀反, 繫獄, 遂自縊

[12월 임진일 韋待價를 安息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安西大都護 閻溫古를 副로 삼아 토번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 해에 대기근이 들었다.]⁶⁸⁾

[수공] 4년(688) 봄 [정월 갑자일 七廟로 증축하고 高祖·太宗·高宗 廟를 神都에 세웠다.]⁶⁹⁾ 2월 乾元殿을 부수고 그 땅에 나아가 明堂을 조성하였다.⁷⁰⁾ 山東과 河南에 기근이 심하여 조서를 내려 司屬卿 王及善, 司府卿 歐陽通과 冬官侍郎 狄仁傑이 巡撫하고 구제[賑給]하였다.

여름 4월 魏王 무승사가 거짓으로 상서로운 돌을 만들고는 ‘성스러운 어머니가 백성에게 임하시니 황제의 대업을 영원히 창성케 하리라’는 글을 새겼다. 雍州 사람 唐同泰를 시켜 표문을 올리고 洛水에서 얻었다고 하였다. 황태후가 크게 기뻐하며 그 돌을 ‘寶圖’라고 호칭하고, 당동태를 游擊將軍에 발탁하여 제수하였다.⁷¹⁾

5월 [을해일] 황태후가 존호를 더하여 聖母神皇이라 하였다.⁷²⁾

而死”(329쪽); 『구당서』 권194상, 突厥傳上, 骨咄祿 조, “貪功先行, 又令人出塞二千餘里覘候, 見元珍等部落皆不設備, 遂率眾掩襲之. 既至, 又遣人報賊, 令得設備出戰, 遂爲賊所覆, 寶璧坐此伏誅. 則天大怒, 因改骨咄祿爲不卒祿”(5167~5168쪽); 『책부원구』 권443, 將帥部, 敗衄3, 曩寶璧 조, 5255~5256쪽; 『책부원구』 권447, 將帥部, 輕敵, 5309쪽 참조.

6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3년 12월 조, 86쪽.

6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4년 정월 조, 87쪽.

70) 이 일은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4년 정월 조, 87쪽에서는 경오일로, 『자치통감』 권203, 수공 4년 2월 조, 6447쪽에서도 경오일로 되어 있다. 경오일은 2월에 없고 1월에는 있다. 아마도 정월 경오일의 일로 생각된다.

71) 『자치통감』 권204, 수공 4년 4월 조, 6448쪽; 『구당서』 권4, 禮儀志4, 釋奠, “則天垂拱四年四月, 雍州永安人唐同泰偽造瑞石於洛水, 獻之. 其文曰, ‘聖母臨人, 永昌帝業’. 於是號其石爲寶圖, 賜百官宴樂, 賜物有差. 授同泰爲游擊將軍”(9925쪽).

72) 『자치통감』 권204, 수공 4년 5월 조, 6448쪽. 任士英은 성모신황이라는 존호의 사용이 세상에 무척천 자신이 황제 등극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것으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은 시간 문제나 다름없었다고 서술하였다(『황제들의 제국사』, 105쪽).

[6월 정해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 汜水에서 瑞石을 얻었다.]⁷³⁾

가을 7월 [정사일] 천하에 대사를 내렸다. ‘보도’를 ‘天授聖圖’라고 고치고, 낙수의 신을 顯聖으로 봉하여 特進의 지위를 더하고 아울러 사당 [廟]을 세웠다. 낙수 옆에 永昌縣을 두었다. 천하에 大酺 5일을 베풀었다.⁷⁴⁾

8월 임인일 博州刺史·琅邪王 [李]沖이 博州를 들어 군대를 일으키니, [병오일] 金吾大將軍 丘神勣을 行軍總管으로 삼아 이를 토벌하도록 명하였다.⁷⁵⁾ 경술일 이충의 부친 豫州刺史·越王 [李]貞이 또 豫州에서 군대를 일으켜 이충과 함께 서로 호응하였다.

9월 [병진일] 명을 내려 內史 岑長倩, 鳳閣侍郎 張光輔, 左監門大將軍 鞠崇裕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⁷⁶⁾ 병인일에 이정 및 이충 등을 참수하고 수급을 神都로 전하고 성을 虺氏로 고쳤다. 博州에 曲赦를 내렸다.⁷⁷⁾ 韓王 [李]元嘉, 魯王 [李]靈夔, 이원가의 아들 黃國公 [李]譔, 이령기의 아들 左散騎常侍·范陽王 [李]藹, 霍王 [李]元軌 및 아들 江都王 [李]緒, 죽은 虢王 [李]元鳳의 아들 東莞公 融坐가 이정과 통모하여 이원가와 이령기는 자살하고, 이원귀는 黔州로 유배시켰으며, 이선 등은 주살되었고 성을 虺氏로 고쳤다. 이로부터 宗室의 諸王 [중에] 계속해서 주살되고 살해된 자가 거의 다였다. 그 자손 [중에] 나이가 어린 자는 모두 嶺外로 유배되고 그 親黨 수백 여 家는 주살되었다.⁷⁸⁾

7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4년 5월 조, 87쪽.

7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4년 가을 7월 조, 87쪽; 『자치통감』 권203, 수공 4년 가을 7월 조, 6449쪽.

7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4년 8월 조, 87쪽.

7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4년 9월 조, 87쪽.

7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에서는 수공 4년 8월 신해일에 博州에 곡사를 내리고, 9월 병인일에 豫州에 사면을 내렸다고 전한다(87쪽).

78) 당 종실을 살해하고 어린 자는 영외로 유배했다는 일은 『신당서』 권4, 측천황후

12월 기유일 神皇이 낙수에 배례하고 ‘天授聖圖’를 받고 이 날에 궁으로 돌아왔다. [신해일] 明堂이 완성되었다.⁷⁹⁾

永昌 원년(689) 봄 정월 [을묘일 초하루] 신황이 친히 명당에 제향하고 천하에 대사를 내리며 연호를 고치고 大酺 7일을 베풀었다.⁸⁰⁾

3월 [갑자일] 張光輔가 內史가 되고 무승사가 남언이 되었다.⁸¹⁾

여름 4월 [갑진일] 蔣王 [李]暉, 道王 [李]元慶, 徐王 [李]元禮, 曹王 [李]明 등의 여러 자손을 주살하고 그 가족은 嶺州로 옮겼다[徙].⁸²⁾

5월 [병진일] 명을 내려 文昌右相 위대가를 安息道大總管으로 삼아 吐蕃을 토벌하게 하였다.⁸³⁾

6월 5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명하여 각각 알고 있는 인재[所知]를 천거하게 하였다.

본기에서는 수공 4년 12월 을유일에 기록되어 있다(88쪽).

7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수공 4년 12월 조, “辛亥, 改明堂爲萬象神宮, 大赦”(88쪽); 『자치통감』 권204, 수공 4년 12월 조, “辛亥, 明堂成, 高二百九十四尺, 方三百尺. 凡三層, 下層法四時, 各隨方色. 中層法十二辰. 上爲圓蓋, 九龍捧之……號曰萬象神宮. 宴賜羣臣, 赦天下, 縱民入觀”(6454~6455쪽).

80) 『자치통감』 권203, 영창 원년 정월 조, “乙卯朔, 大饗萬象神宮, 太后服袞冕, 拊大圭, 執鎮圭爲初獻, 皇帝爲亞獻, 太子爲終獻. 先詣昊天上帝座, 次高祖·太宗·高宗, 次魏國先王, 次五方帝座. 太后御則天門, 赦天下, 改元”(6456쪽). 또한 같은 책, 같은 쪽의 을묘일 이후의 일은 다음과 같다. “丁巳, 太后御明堂, 受朝賀. 戊午, 布政于明堂, 頒九條以訓百官. 己未, 御明堂, 饗羣臣”.

81) 『자치통감』 권203, 영창 원년 3월 조, “甲子, 張光輔守納言”(6457쪽).

82) 『자치통감』 권203, 영창 원년 4월 조, “甲辰, 殺辰州別駕汝南王煒·連州別駕鄱陽公譔等宗室十二人, 徙其家於嶺州. 煒, 暉之子. 譔, 元慶之子也”(6457쪽).

8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영창 원년 5월 조, “五月丙辰, 韋待價及吐蕃戰于寅識迦河, 敗績. 己巳, 白馬寺僧薛懷義爲新平道行軍大總管, 以擊突厥”(88쪽); 『자치통감』 권203, 영창 원년 5월 조, “丙辰, 命文昌右相韋待價爲安息道行軍大總管, 擊吐蕃. 浪穹州蠻酋傍時昔等二十五部, 先附吐蕃, 至是來降. 以傍時昔爲浪穹州刺史, 令統其衆”(6457쪽).

가을 7월 [정사일]⁸⁴⁾ 紀王 [李]愼이 謀反하였다고 무고를 받아 檻車에 실려서 巴州로 유배되고 성을 虺氏로 고쳤다. [병자일] 위대가가 [군대를] 지체시켜 전진하지 않고 사졸이 많이 굶주리고 죽은 [죄]에 저촉되어 繡州로 유배되었다.⁸⁵⁾

8월 左肅政·御史大夫 王本立이 同鳳閣鸞臺三品이 되었다. 신사일에 內史 張光輔를 주살하였다.

[윤]9월 [갑오일] 納言 魏玄同이 집에서 賜死되었다.⁸⁶⁾

겨울 10월 春官尙書 范履冰, 鳳閣侍郎 邢文偉가 모두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羽林軍百騎를 千騎로 고쳤다.

載初 원년(690) 봄 정월 [경진일 초하루] 신황이 친히 명당에 제향하고 천하에 대사를 내렸다. 周制에 따라 建子月을 正月로 하고, 영창 원년 11월을 재초 원년 정월로 고치고, 12월을 臘月로 고치며, 옛 정월은 1월로 고치고,⁸⁷⁾ 3일 간 크게 연회를 베풀었다. [정해일] 신황이 스스로 ‘墨’자로 이름을 삼고 마침내 詔書를 制書라고 고쳤다.⁸⁸⁾

봄 1월 [무자일] 소량사는 特進, 무승사는 文昌左相, 잠장친은 文昌右相, 배거도는 太子少傅가 되고, 모두 예전과 같이 동봉각란대삼품이었다. 鳳閣侍郎 武攸寧은 납언이 되고, 형문위는 내사가 되었다.⁸⁹⁾

84) 『자치통감』 권203, 영창 원년 가을 7월 조, 6458쪽.

85) 『자치통감』 권203, 영창 원년 가을 7월 조, “韋待價軍至寅識迦河, [호삼성 주: 據舊書待價傳, 寅識迦河當在弓月西南]. 與吐蕃戰, 大敗. 待價既無將領之才, 狼狽失據. 士卒凍餒, 死亡甚衆, 乃引軍還. 太后大怒. 丙子, 待價除名, 流繡州. [호삼성 주: 繡州, 漢阿林縣地, 至隋猶屬鬱林郡. 唐武德四年分置林州, 六年改曰繡州. 去長安六千九十里, 至東都五千五百里.] 斬副大總管安西大都護閻溫古. 安西副都護唐休璟收其餘衆, 撫安西土. 太后以休璟爲西州都督”(6459쪽).

86) 『자치통감』 권203, 영창 원년 윤9월 조, 6460~6461쪽.

87) 『자치통감』 권203, 천수 원년(690) 정월 조, 6462쪽.

88) 『자치통감』 권203, 천수 원년 정월 조, 6462쪽.

가을 7월 [임오일] 豫章王 [李]暄을 살해하고, [신사일] 그 부친 舒王 [李]元名를 和州로 옮겼다[遷].⁹⁰⁾ 沙門 10인이 거짓으로 『大雲經』을 짓고는 표문으로 올려 신황이 천명을 받은 일을 장황하게 말하였다. 제서를 내려 천하에 반포하고 諸州에 각각 大雲寺를 세우게 하니 모두 승려가 1천 명으로 헤아려졌다.⁹¹⁾ 정해일에 隨州刺史·澤王 [李]上金과 舒州刺史 許王 [李]素節, 아울러 그 아들 수십 인을 살해하였다.

[天授 원년(690)] 9월 9일 임오일에 唐命을 혁파하고 국호를 周로 고쳤다. 天授로 개원하고 천하에 대사를 내려 7일 간 연회를 베풀었다. 을유일에 존호를 더하여 聖神皇帝라고 하고, 皇帝를 강등시켜 皇嗣로 하였다.⁹²⁾ 병술일에 처음으로 武氏 7묘를 神都에 세웠다. 신황의 부친 贈太尉·太原王 [武]士彊을 孝明皇帝로 추존하였다. 형의 아들 文昌左相 [武]承嗣를 魏王으로, 天官尙書 三思를 梁王으로, 堂姪 懿宗 등 12인을 郡王으로 삼았다. 司賓卿 史務滋가 납언이 되고 鳳閣侍郎 宗秦客이 내사가

89) 『자치통감』 권203, 천수 원년 1월 조, 6463쪽.

90) 『자치통감』 권203, 천수 원년 가을 7월 조, 6464쪽;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재초 원년 가을 7월 조, 90쪽. 그런데 서왕 이원명의 유배는 신사일이고, 임오일이라고 기록된 예장왕의 죽음보다 시간상 앞에 위치한다.

9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재초 원년 7월 조에서는 천하에 대운경을 반포한 일이 신사일로 豫章王 李暄을 살해한 일보다 이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 권183, 外戚, 薛懷義傳, “懷義與法明等造大雲經, 陳符命, 言則天是彌勒下生, 作閻浮提主, 唐氏合微, 故則天革命稱周, 懷義與法明等九人並封縣公, 賜物有差, 皆賜紫袈裟·銀龜袋, 其偽大雲經頒於天下, 寺各藏一本, 令升高座講說”(4742쪽). 『자치통감』에 의하면, 『대운경』을 편찬하여 표문으로 올린 것이 재초 원년 7월이고(6466쪽), 兩京과 諸州에 대운사를 세워 『대운경』을 수장하게 하고 이를 찬술하고 주소한 승려 등에게 상을 하사한 것은 10월 임신일의 일로 전한다(6469쪽).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원년 10월 조에서도 대운사를 설치하였다는 일이 전한다(91쪽).

9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天授 원년 9월 조, “……降皇帝爲皇嗣, 賜姓武氏, 皇太子爲皇孫”(90쪽).

되었다. 給事中 傅游藝가 鸞臺侍郎이 되고 여전히 예전과 같이 知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사무자 등 12인에게 명하여 道로 나누어 천하를 안무하게 하였다. 內外 관원이 패용하는 [隨身魚符의 모양을 바꾸어] 어부[魚]를 모두 귀부[龜]로 바꾸었다.⁹³⁾

겨울 10월 并州 文水縣을 武興縣으로 고치고 漢의 豐[縣]·沛[縣]의 선례에 따라 百姓子孫이 서로 이어받아 給復하였다.⁹⁴⁾

[武后가 일찍이 金幣를 내어 文武官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 5명을 뽑아 적중한 사람에게 하사하였다. 內史 張光輔가 먼저 양보하여 헌성이 첫 번째가 되었다. 헌성이 뒤이어 右王鈐衛大將軍 薛吐摩支에게 양보하였고, 설토마지는 또 헌성에게 양보하였다. 이윽고 헌성이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활 잘 쏘는 자를 뽑았으나 華人이 아닌 자가 많습니다. 신은 唐官이 활쏘기를 수처로 여길까 우려되니 [이 일을] 없애느니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무후가 기쁘게 받아들였다].⁹⁵⁾

93) 『당회요』 권31, 輿服上, 魚袋, 천수 원년 9월 조, “二十六日, 改內外官所佩魚爲龜”(676쪽). 또한 隨身魚符에 대해서는 『唐令拾遺』, 公式令21, 親王并給隨身魚符조에 “諸親王者並給隨身魚符. 親王以金造, 餘以銅造, 皆題云其位姓名. 其官只有一員者, 不須著姓名. 卽官名與曹司同者, 雖一員亦著姓名. 隨身者, 仍著姓名. 左二右一, 右符隨身, 左符進內. 其隨身符以袋盛, 三品以上飾以金, 五品以上飾以銀. 薨卒者不進收. 若在家非時及出使, 別敕負檢校, 并領兵在外, 不別給符契. 若須回改處分者, 勘符同, 然後承用”(516쪽)이라 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布目潮瀾, 『唐代符制考』, 『布目潮瀾中國史論集』上卷, 汲古書院, 2002, 270~271쪽 등 참조.

94) 한 고조가 자신의 고향을 湯沐邑으로 삼은 일을 따른 것이다.

95) 『삼국사기』 권49, 獻誠傳, “武后嘗出金幣, 於文武官內, 擇善射者五人, 中者以賜之. 內史張光輔先讓獻誠爲第一, 獻誠後讓右王鈐衛大將軍薛吐摩支, 摩支又讓獻誠. 既而獻誠奏曰, “陛下擇善射者, 然多非華人. 臣恐唐官以射爲恥, 不如罷之”. 后嘉納”. 또한 『자치통감』 권204, 천수 원년 時歲 조, 6470쪽 참조.

[천수] 2년(691) 정월⁹⁶⁾ [을유일] 친히 明堂에 제사지냈다.⁹⁷⁾

[臘月] 기미일 비로소 周의 臘[月]을 사용하였다.⁹⁸⁾

봄 3월 唐의 太廟를 享德廟로 고쳤다.

여름 4월 [임인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⁹⁹⁾ [계묘일] 령을 내려 불교를 도교의 위에 두어 僧尼가 道士와 女冠의 앞에 있게 하였다.¹⁰⁰⁾ [병오일 大赦를 내렸다.]¹⁰¹⁾

6월 잠장천에게 명하여 諸軍을 이끌고 토번을 토벌하게 하였다.¹⁰²⁾ [경술일] 左肅政御史大夫 格輔元을 地官尙書로 삼고, 鸞臺侍郎 樂思晦를 아울러 同鳳閣鸞臺平章事로 삼았다.¹⁰³⁾

가을 7월 [경오일] 關內的 雍·同 등 7개의 戶 수십 만을 옮겨 洛陽을 채웠다.¹⁰⁴⁾ 京兆를 나누어 鼎·稷·鴻·宜 네 주로 하였다. [8월 무신일]

9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정월 조에는 이 달에 있었던 일이 보다 자세히 전한다. “甲戌, 改置社稷, 旗幟尚赤, 戊寅, 殺雅州刺史劉行實及其弟渠州刺史行瑜·尚衣奉御行感·兄子左鷹揚衛將軍度通, 戊子, 武承嗣爲文昌左相, 庚寅, 賜醢, 乙未, 殺丘神勳·左豹韜衛將軍蒲山, 庚子, 殺史務滋”(91쪽).

97) 『자치통감』 권204, 천수 2년 정월 조, “乙酉, 日南至, 大享明堂, 祀昊天上帝, 百神從祀, 武氏祖宗配饗, 唐三帝亦同配”(6470~6471쪽). 이때 정월은 즉 11월이다.

9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臘月 조, 91쪽.

9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4월 조, 91쪽.

100) 『자치통감』 권204, 천수 2년 4월 조, “癸卯, 制以釋教開革命之階, [호삼성 주: 謂大雲經也.] 升於道教之上”(6473쪽).

10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4월 조, 91쪽.

102) 『신당서』 권61, 宰相表上에 의하면 5월 정해일에 잠장천이 무위도행군대총관에 임명되었다(1655쪽). 그러나 이때 군대가 출전하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참조. 『자치통감』 권204, 천수 2년 5월 조, “以岑長倩爲武威道行軍大總管, 擊吐蕃, 中道召還, 軍竟不出”(6473쪽); 『신당서』 권102, 岑長倩傳, “長倩爭不可, 繇是與諸武忤, 罷爲武威道行軍大總管, 征吐蕃, 未至, 詔還, 下獄, 來俊臣胥誣長倩與輔元·歐陽通數十族謀反, 斬于市, 五子同賜死, 發暴先墓”(3968쪽).

10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6월 조, “鸞臺侍郎樂思晦, 鳳閣侍郎任知古, 同鳳閣鸞臺平章事”(92쪽).

夏官尙書 歐陽通을 知納言事로 삼았다.¹⁰⁵⁾

9월 [임진일] 부유예가 하옥되어 죽었다. [계사일] 右羽林衛大將軍 · 建昌王 무유녕을 納언으로, 洛州司馬 狄仁傑을 地官侍郎 · 同鳳閣鸞臺平章事로 삼았다.¹⁰⁶⁾

겨울 10월 제서를 내려 관인인 자는 모두 스스로를 천거하게 하였다. [기유일] 문창좌상 잠장천, 納언 구양통, 地官상서 격보원을 살해하였다.¹⁰⁷⁾

[천수] 3년(692) 정월 [초하루 무진일] 친히 명당에 제사지냈다.¹⁰⁸⁾

[납월 옛 于闐王 尉遲伏闐雄의 아들 瑕를 우전왕으로 세웠다.]¹⁰⁹⁾

봄 1월 [무진일] 冬官尙書 楊執柔가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¹¹⁰⁾

[2월 기해일 吐蕃 党項部落의 만여 인이 內附하여 나누어 10주를 두었다.]¹¹¹⁾

[당 中宗¹¹²⁾이 사신을 보내 口勅을 내렸다.

10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7월 조, 92쪽.

10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8월 조, 92쪽; 『자치통감』 권204, 천수 2년 8월 조, 6473쪽.

10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9월 조, 92쪽.

10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수 2년 10월 조에 의하면, 잠장청 등을 살해한 일은 기유일이며, 임술일에는 樂思晦와 左衛將軍 李女靜도 살해하였다(92쪽).

108) 『자치통감』 권204, 천수 3년 정월 조, “太后享萬象神宮”(6477쪽).

109) 『자치통감』 권204, 천수 3년 납월 조, 6477쪽. 『구당서』 권198, 西戎, 于闐國傳, “天授三年, 伏闐雄卒, 則天封其子璿爲于闐國王”(5305쪽); 『신당서』 권221상, 西域上, 于闐傳, “武后立其子璿”(6235쪽). 兩唐書 서역전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이 璿으로 전한다.

11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원년 1월 조, 92쪽.

111) 『자치통감』 권204, 천수 3년 2월 조, 6428쪽.

112) 683년 12월 고종이 죽고 중종이 즉위하였으나 곧이어 무척천이 그를 폐위시키고 국호를 周라 하였다. 705년 무척천이 제위를 넘겨주면서 다시 즉위하여 국

우리 太宗文皇帝는 신묘한 공과 성대한 덕이 천고에 뛰어났다. 그러므로 선왕께서 귀천하신 날[上僊之日]에 廟號를 大宗이라 하였다. 너희 나라의 선왕 金春秋도 이와 같은 묘호이니, 매우 참람된 일이다. 모름지기 빨리 칭호를 고쳐야 할 것이다.

(신라)왕이 여러 신하와 함께 의논하여 대답하였다.

小國의 선왕 김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聖祖의 묘호와 서로 저촉되어 勅으로 이를 고치게 하니, 신이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건대 선왕 김춘추는 자못 어진 덕이 있었고, 하물며 생전에 어진 신하 金庾信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사를 하여 三韓을 일통하였으니, 그 공업을 이룩한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왕이 돌아가셨을 때 온 나라의 臣民이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추존한 묘호가 성조와 서로 저촉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敕勅을 들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사신은 闕庭에서 복명할 때 이대로 황제께 아뢰시오.

뒤에는 다시 별다른 勅이 없었다.¹¹³⁾

호를 唐으로 회복시키고 710년까지 재위하였다. 그러나 692년 당시는 중종이 폐위되어 房陵에 유폐되어 있었으므로(『구당서』 중종본기) 사신을 보낸 이는 중종일 리가 없다. 한편 『삼국유사』 권1, 紀異, 太宗春秋, 조에도 신문왕대에 당 고종이 무열왕의 묘호를 고치라고 한 일이 전한다(神文王時, 唐高宗遣使新羅曰, “朕之聖考, 得賢臣魏徵·李淳風等, 協心同德, 一統天下, 故爲太宗皇帝, 汝新羅海外小國, 有太宗之号, 以僭天子之名, 義在不忠, 速改其号”. 新羅王上表曰 “新羅雖小國, 得聖臣金庾信一統三國, 故封爲太宗.” 帝見表, 乃思儲貳時, 有天唱空云 “三十三天之一人, 降於新羅爲庾信”. 紀在於書, 出檢視之驚懼不已. 更遣使許無改太宗之号). 고종은 683년(신문왕 3) 12월에 사망하였다.

113) 『삼국사기』 권8, 신문왕 12년(692) 봄 조, “唐中宗遣使口勅曰, ‘我太宗文皇帝,

3월 다섯 天竺國이 모두 사신을 보내 朝貢하였다.¹¹⁴⁾

[如意 원년(692)] 4월 [병신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如意로 연호를 고치고¹¹⁵⁾ 천하에 도살을 금지하였다.

[5월 …… 吐蕃의 酋長 曷蘇가 部落을 이끌고 內附를 청하니 右玉鈴衛將軍 張玄遇를 安撫使로 삼고 精卒 2만을 거느리고 맞이하게 하였다. 6월 군대가 大渡水 서쪽에 이르렀는데, 갈소의 사안이 누설되어 國人에게 잡혔다. 別部 酋長 咎捶가 羌蠻 8천여 인을 이끌고 내부하니 장현우는 그 부락을 萊川州에 안치하고 돌아왔다.¹¹⁶⁾

가을 7월 크게 비가 내려 洛水가 범람하여¹¹⁷⁾ 거주민 5천여 家가 표류하니 사자를 보내 위문[巡問]하고 賑貸하였다.

[당 측천무후가 사신을 보내 조문·제사하고, 이어 왕을 新羅王·輔國大將軍·行左豹韜尉大將軍·雞林州都督으로 책봉하였다].¹¹⁸⁾

神功聖德, 超出千古. 故上僊之日, 廟號大宗. 汝國先王金春秋, 與之同號, 尤爲僭越. 須急改稱. 王與羣臣同議, 對曰, ‘小國先王春秋諡號, 偶與聖祖廟號相犯, 勅令改之, 臣敢不惟命是從. 然念先王春秋, 頗有賢德, 況生前得良臣金庾信, 同心爲政, 一統三韓, 其爲功業, 不爲不多. 捐館之際, 一國國民, 不勝哀慕, 追尊之號, 不覺與聖祖相犯. 今聞教勅, 不勝恐懼. 伏望使臣復命闕庭, 以此上聞.’ 後更無別勅”.

114) 『당회요』 권100, 天竺國, “天授三年, 東天竺王摩羅枝摩, 西天竺王尸羅逸多, 南天竺王遮邏其跋邏婆, 北天竺王婁其那那, 中天竺王地婆西那, 並來朝貢”(2123쪽).

11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원년 4월 조, 92쪽.

116) 『자치통감』 권205, 천수 2년 5월 및 6월 조, 6482~6483쪽. 萊川州에 관해서는 해당 조의 호삼성 주 등을 참조. 호삼성 주, “黎州都督府所管羈糜州有米川州, 新書作‘葉州.’; 考異曰, “唐紀作‘沓搖’. 今從實錄”.

117) 5월에 낙수가 범람하고, 7월에 또 범람하였다(『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원년 5월 및 7월 조, 92쪽).

118) 『삼국사기』 권8, 효소왕 조, “唐則天遣使吊祭, 仍册王爲新羅王·輔國大將軍·行左豹韜尉大將軍·雞林州都督”. 이 기사는 효소왕 원년 8월 조 앞에 위치하여 여의 원년 7월 조에 두었다. 다만, 이 일은 『구당서』 권199, 東夷, 新羅國傳, “天

8월 [무인일] 魏王 무승사가 特進이 되고, 建昌王 무유녕이 冬官尙書가 되고, 楊執柔가 地官尙書가 되고 모두 정사의 주제를 그만두었다[罷]. 秋官侍郎 崔元琮을 鸞臺侍郎, 夏官侍郎 李昭德을 鳳閣侍郎, 檢校天官侍郎 姚璿을 文昌左丞, 地官侍郎 李元素를 文昌右丞으로 삼고 모두 同鳳閣 鸞臺平章事로 삼았다.¹¹⁹⁾

[長壽 원년(692)] 9월 [경자일] 천하에 대사를 내리고 長壽로 연호를 고쳤다. 9월의 제사를 고쳐서 社로 하고 7일 간 크게 연회를 베풀었다.¹²⁰⁾ [계묘일] 并州를 北都로 고쳐 설치하였다.¹²¹⁾

겨울 10월 [병술일] 武威軍總管 王孝傑이 토번을 대파하고 龜茲·于闐·疏勒·碎葉鎮을 회복하였다.¹²²⁾

[장수 원년 임진해 孝昭[王]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望德寺를 창건하고

授三年, 政明卒, 則天爲之舉哀, 遣使弔祭, 冊立其子理洪爲新羅王, 仍令襲父輔國大將軍, 行豹韜衛大將軍·雞林州都督”(5337쪽); 『당회요』 권95, 新羅, 장수 2년 조, “政明卒, 冊立其子理洪爲王. 三年, 遣使來朝. 其年, 理洪卒. 冊立其弟崇基爲王. 仍令襲兄輔國大將軍左豹韜大將軍雞林州都督”(2028쪽); 『冊府元龜』 권964, 外臣部, 封冊2, “長壽二年, 新羅王金政明卒, 爲之舉哀遣使弔祭, 冊其子理洪, 爲新羅王. 仍令襲父輔國大將軍·行左豹韜衛大將軍·雞林州都督”(11341쪽); 『자치통감』 권205, 長壽 2년 2월 조, “丙子, 新羅王政明卒, 遣使立其子理洪爲王”(6490쪽) 등에서 시점이 달리 전한다.

11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원년 8월 조, 93쪽.

12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원년 9월 조, 93쪽.

12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원년 9월 조, 93쪽.

12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원년 10월 조, 93쪽; 『자치통감』 권205, 장수 원년 9월 및 10월 조, “初, 新豐王孝傑從劉審禮擊吐蕃爲副總管, 與審禮皆沒於吐蕃. 贊普見孝傑泣曰, ‘貌類吾父.’ 厚禮之, 後竟得歸, 累遷右鷹揚衛將軍. 孝傑久在吐蕃, 知其虛實, 會西州都督唐休璟請復取龜茲·于闐·疏勒·碎葉四鎮, 敕以孝傑爲武威軍總管, 與武衛大將軍阿史那忠節將兵擊吐蕃. 冬, 十月, 丙戌, 大破吐蕃, 復取四鎮. 置安西都護府於龜茲, 發兵戍之”(6486~6487쪽). 이 시기 안서사건의 회복에 대해서는 이진선, 「唐 前期 安西四鎮의 設置와 變化樣相」, 『東洋史學研究』 141, 2017, 112~113쪽.

당 황실의 복을 받들려 하였다.¹²³⁾

[고승 道證이 당에서 돌아와 天文圖를 바쳤다].¹²⁴⁾

[장수] 2년(693) 봄 1월¹²⁵⁾ 친히 명당에 제향하였다. 계해일¹²⁶⁾ 皇嗣妃 劉氏와 竇氏를 살해하였다.

납월 [정묘일]¹²⁷⁾ 皇孫 成器를 壽春郡王에, 恆王 成義를 衡陽郡王에, 隆基를 臨淄郡王에, 衛王 隆範을 巴陵郡王에, 隆業을 彭城郡王에 고쳐 봉하였다.

봄 2월 尙方監 裴匪躬이 몰래 皇嗣를 알현한 [죄]에 저촉되어 都市에서 腰斬되었다.¹²⁸⁾

123) 『삼국유사』 권5, 感通7, 眞身受供 조, “長壽元年壬辰孝昭即位, 始創望德寺將以奉福唐室. 後景德王十四年望德寺塔戰動, 是年有安史之亂, 羅人云, ‘爲唐室立茲寺, 宜其應也’”. 한편, 望德寺는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신문왕 5년(685) 4월 조에서도 망덕사가 완성된 일을 전한다(앞의 垂拱 원년(685) 4월 조 참조).

124) 『삼국사기』 권8, 신라 효소왕 원년 8월 조 뒤에 있으나 정확한 시기를 추정할 수 없어 이 해의 마지막에 두었다.

125) 中華書局標點本的 校勘記3에서 (장수) 2년 봄1월에 대하여 재초 원년(690) 11월을 정월로, 12월을 臘月로, 옛 정월은 1월로 고쳤다. 여기에서 ‘봄 1월’은 납월의 앞에 있는데 마땅히 ‘正月’의 오류이고, 『자치통감』 권205와 『唐書合鈔』 권6, 則天紀에서는 ‘正月’로 되어 있으니, 옳다. 아래의 글 장수 3년 및 證聖 원년 두 곳의 ‘봄 1월’도 역시 ‘정월’의 오류이다라고 하였다(134쪽). 또한 다음 달이 납월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정월이 옳다.

126) 두 황사비를 살해한 일은 『신당서』에서는 계해일로(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2년 납월 조, 93쪽), 『자치통감』에서는 정월 계사일로(권205, 장수 2년 정월 조, 6488쪽) 전한다. 앞의 『구당서』 교감기에서는 여기의 ‘봄 1월’이 정월의 오류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신당서』에서 납월이라는 것도 오류일 것이다.

12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2년 납월 조, 93쪽; 『자치통감』 권205, 장수 2년 1월 조, 6489쪽.

128) 裴匪躬의 죽음은 『신당서』와 『자치통감』에서 모두 1월 갑인일의 사건으로 전한다.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2년 1월 조, 93쪽; 『자치통감』 권205, 장수 2년 1월 조, 6490쪽.

[2월 병자일 新羅王 政明이 추하여 사신을 보내 그 아들 理洪을 왕으로 세웠다.]¹²⁹⁾

가을 9월 [정해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¹³⁰⁾ [을미일] 황상이 金輪聖神皇帝라는 호를 더하고 천하에 대사를 내리고 7일 간 크게 연회를 베풀었다.¹³¹⁾ 신축일에 司賓卿 豆盧欽望이 내사가 되고, 文昌右丞 韋巨源이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고, 秋官侍郎 陸元方이 鸞臺侍郎 ·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장수] 3년(694) 봄 1월 친히 明堂에 제사지냈다.¹³²⁾

[突厥可汗 骨篤祿이 졸하였는데, 그 아들이 여러 동생 默啜이 스스로 가한이 되었다.]¹³³⁾

[납월에 돌궐 목철이 靈州를 침략하였다.]¹³⁴⁾ [室韋가 反하여 右鷹揚衛大將軍 李多祚를 보내 擊破하게 하였다.]¹³⁵⁾

[2월 경오일 薛懷義를 伐逆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18將軍을 거느리고

129) 『자치통감』 권205, 장수 2년 2월 조, 6490쪽.

13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2년 9월 조, 93쪽.

13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2년 9월 조, 93쪽.

132) 『자치통감』 권205, 장수 3년 정월 조, “丙戌, 太后享萬象神宮”(6493쪽). 봄1월은 정월의 오류일 것이다.

133) 『자치통감』 권205, 장수 3년 정월 조, 6493쪽.

13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3년 납월 조, 94쪽

135) 『자치통감』 권205, 장수 3년 정월 조, “室韋反, [호삼성 주: 北史曰, 室韋蓋契丹之類, 其南者爲契丹, 在北者爲室韋. 新書, 室韋, 契丹別種, 東胡之北邊, 蓋丁寧苗裔也. 地據黃龍, 北傍獯越河, 直京師東北七千里, 東黑水靺鞨, 西突厥, 南契丹, 北瀕海. 其國無君長, 惟大酋皆號莫賀咄, 管攝其部而附于突厥.] 遣右鷹揚衛大將軍李多祚擊破之”(6493쪽). 한편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3년 납월 조에서는 실위가 아닌 돌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당서』 권110, 李多祚傳, “室韋及孫萬榮之叛, 多祚與諸將進討, 以勞改右羽林大將軍, 遂領北門衛兵”(4125쪽)의 기록으로 볼 때 실위가 옳을 것이다.

묵철을 공격하게 하였다. 을해일 가뭄이 들어 慮囚하였다. 기묘일 武威道大總管 王孝傑이 토번과 冷泉에서 싸워 패배시켰다.]¹³⁶⁾

3월 [갑신일]¹³⁷⁾ 鳳閣侍郎 李昭德이 檢校內史, 鸞臺侍郎 蘇味道가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韋巨源이 夏官侍郎이 되었고 예전과 같이 政事를 맡았다. [薛懷義를 朔方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돌궐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소덕을 朔方道行軍長史로 삼고 소미도를 司馬로 삼았다.]¹³⁸⁾

4월 夏官尚書 王孝傑이 同鳳閣鸞臺三品이 되었다.

[(4월 29일) 김인문이 당에서 죽었는데, 나이가 66세였다.]¹³⁹⁾

延載 원년(694) 5월 [갑오일] 황제가 尊號를 더하여 越古金輪聖神皇

13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3년 2월 조, 94쪽. 『자치통감』에서는 왕효걸이 토번을 격파한 일이 묵철을 공격하게 한 일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고 보다 자세한 상황이 전한다. 『자치통감』 권205, 장수 3년 2월 조, “二月, 武威道總管 王孝傑破吐蕃教論贊兀·突厥可汗倭子等於冷泉及大嶺, [호삼성 주: 倭子, 西突厥部所立也.] 各三萬餘人, 碎葉鎮守使韓思忠破泥熟佗斤等萬餘人. [考異曰, 此事諸書皆無, 唯統紀有之. 統紀又云, ‘又破吐蕃萬泥動沒馱城.’ 語不可曉, 今刪去.] 庚午, 以僧懷義爲代北道行軍大總管, [考異曰, 實錄·新紀皆云‘伐逆道, 今從舊懷義傳.] 以討默啜”(6493~6494쪽).

13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3년 3월 조, 94쪽.

13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수 3년 3월 조, 94쪽.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자치통감』 권205, 장수 3년 3월 조, “甲申, 以鳳閣舍人蘇味道爲鳳閣侍郎·同平章事, 李昭德檢校內史. 更以僧懷義爲朔方道行軍大總管, 以李昭德爲長史, 蘇味道爲司馬, 帥契苾明·曹仁師·沙吒忠義等十八將軍以討默啜, 未行, 虜退而止. 昭德嘗與懷義議事, 失其旨, 懷義達之, 昭德惶懼請罪”(6494쪽) 참조.

13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효소왕 3년 조. 또 『삼국사기』 권44, 金仁問傳, “延載元年四月二十九日, 寢疾薨於帝都, 享年六十六. 訃聞上震悼, 贈祿加等. 命朝散大夫行司禮寺大醫署合陸元景·判官朝散郎直司禮寺某等, 押送靈柩”. 한편 『三國遺事』 권2, 紀異, “王聞文俊善奏帝有寬赦之意, 乃命強首先生作請放仁問表, 以舍人遠禹奏於唐. 帝見表流涕赦仁問慰送之. 仁問在獵時, 國人爲柵寺名仁容寺, 開設觀音道場, 及仁問來還死於海上, 改爲彌陀道場, 至今猶存”에서는 김인문이 신라로 돌아오던 중 해상에서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帝라 하고, 天下에 大赦를 내리고 延載로 연호를 고치며 大酺 7일을 베풀었다.¹⁴⁰⁾

가을 8월 [무진일 왕효걸을 瀚海道行軍總管으로 삼았다.]¹⁴¹⁾ [기사일] 司賓少卿 姚壽를 納言으로 삼았다. 左肅政御史中丞 楊再思를 鸞臺侍郎, 洛州司馬 杜景儉을 鳳閣侍郎으로 삼았는데, 이로써 모두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¹⁴²⁾ 梁王 武三思가 諸蕃의 酋長에게 東都의 銅鐵을 대거 징수할 것을 奏請하자고 권유하여 天樞를 端門 밖에 세우고 황제의 功業을 기록하여 칭송하였다.¹⁴³⁾

9월 [임인일]¹⁴⁴⁾ 內史 李昭德이 欽州南賓縣尉로 좌천[左授]되었다.

겨울 10월 [임신일] 文昌右丞 李元素가 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¹⁴⁵⁾ [嶺南의 獠[族]이 변경을 침략하니 容州都督 張玄遇를 桂·永等州經略大使로 삼았다.]¹⁴⁶⁾

證聖 원년(695) [정월 신사일] 황제가 존호를 더하여 慈氏越古金輪聖神皇帝라 하고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연호를 고치며 大酺 7일을 베풀었다.¹⁴⁷⁾ 무자일에 豆盧欽望·韋巨源·杜景儉·蘇味道·陸元方이 모두

14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연재 원년 5월 조, 94쪽.

14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연재 원년 8월 조, 94쪽.

14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연재 원년 8월 조, 94쪽.

143) 『자치통감』 권205, 연재 원년 8월 조, “武三思帥四夷酋長請鑄銅鐵爲天樞, 立於端門之外, [호삼성 주: 端門, 洛陽皇城正南門.] 銘紀功德, 黜唐頌周. 以姚壽爲督作使. 諸胡聚錢百萬億, 買銅鐵不能足, 賦民間農器以足之”(6496쪽).

14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연재 원년 9월 조, 95쪽.

14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연재 원년 10월 조, 95쪽.

14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연재 원년 10월 조, 95쪽. 『신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요족의 침략 사건은 임신일 이후 계유일 이전의 일이다.

14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證聖 원년 정월 조에서는 신사일에 3일 간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95쪽).

[각각] 趙[州] · 鄜[州] · 集[州] · 綏州刺史로 좌천되었다.¹⁴⁸⁾ 병신일 밤 明堂에 화재가 나 다음날 잿더미가 되었다. 경자일 명당 화재를 태묘에 고하여 손수 조서를 써 자신을 책망하고 내외 문무 [관원] 9품 이상에게 각각 封事(즉 사안을 밀봉)하여 직언하고 바른 말로 간언하게 하였다.¹⁴⁹⁾ [병오일 왕효걸을 朔方行軍總管으로 삼아 돌궐을 토벌하게 하였다.]¹⁵⁰⁾

[子月을 정월로 삼았다].¹⁵¹⁾

봄 2월 [기유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¹⁵²⁾ [갑자일] 황제가 慈氏越古 존호를 없앴다.¹⁵³⁾

[4월 무인일 大周萬國頌德天樞를 건설하였다.]¹⁵⁴⁾

[7월 신유일 토변이 臨洮를 침략하자 왕효걸을 肅邊道行軍大總管으

14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증성 원년 정월 조, “……杜景佺溱州刺史……”(95쪽). 杜景儉의 이름은 杜景佺일 것이다. 그의 좌천지와 시기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149) 무측천은 승려 설희의에게 명하여 명당에 모시로 큰 불상을 짓게 하였다. 명당에서 無遮會를 열기도 하였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였다. 명당이 불타 태묘에 고한 일 등은 『자치통감』 권205, 증성 원년 정월 조, 6498~6501쪽 참조.

15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증성 원년 정월 조, 95쪽. 왕효걸은 같은 해 7월 신유일 토변이 臨洮를 침략하자 肅邊道行軍大總管에 임명되었다(同書, 95쪽).

15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효소왕 4년 조, “以立子月爲正”. 자월은 11월이다. 당 무측천 재초 원년(690) 정월에 영창 원년 11월을 재초 원년 정월로, 12월을 臘月로, 옛 정월은 1월로 고쳤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주삼국사기』(주석편상), 261쪽에서는 신라에서 효소왕 4년에 자월을 정월로 삼았던 것은 당의 정사 변경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에 본문에 올려두었다.

15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증성 원년 2월 조, 95쪽.

15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증성 원년 2월 조, 95쪽.

15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증성 원년 4월 조, 95쪽. 또한 『자치통감』 권205, 증성 원년 4월 조, “天樞成, 高一百五尺, 徑十二尺, 八面, 各徑五尺, 下爲鐵山, 周百七十尺, 以銅爲蟠龍麒麟綈繞之. 上爲騰雲承露盤, 徑三丈, 四龍人立捧火珠, 高一丈. 工人毛婆羅造模, 武三思爲文, 刻百官及四夷酋長名, 太后自書其榜曰‘大周萬國頌德天樞’”(6502~6503쪽) 참조.

로 삼아 공격하게 하였다.]¹⁵⁵⁾

[天册萬歲 원년(695)] 가을 9월 [갑인일]¹⁵⁶⁾ 친히 南郊에 제사지내고 존호를 더하여 天册金輪聖神皇帝라 하고 천하에 大赦를 내리며 연호를 고쳐 天册萬歲라 하고, 大辟 죄 이하 및 十惡을 범하여 常赦에서 사면 [原]받지 못한 자는 모두 사면하여 죄를 없애주고 大酺 9일을 베풀었다.

[10월 돌궐 목철이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하자 太后가 기뻐하며 左衛 大將軍 · 歸國公에 冊授하였다.]¹⁵⁷⁾

萬歲登封 원년(696) 臘月 갑신일 황제가 嵩嶽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封],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연호를 고치고 大酺 9일을 베풀었다.¹⁵⁸⁾ 정해일 少室山에서 땅에 제사를 지냈다[禪]. 기축일 또 제서를 내려 內外 3품 이상의 관원에게 이전의 작위를 해아려 爵 2등을 하사하고 4품 이하에게는 2階를 더해주었다. 洛州의 百姓에게는 2년 [세금을] 면제 [給復]하고 登封과 告成縣에는 3년을 면제하였다. 계사일 崇嶽에서 돌아왔다. 갑오일 친히 太廟에 배알하였다.

[봄 1월 갑인일 婁師德을 肅邊道行軍副總管으로 삼아 토번을 공격하게 하였다.]¹⁵⁹⁾

봄 3월 [임인일 王孝傑과 婁師德이 토번과 素羅汗山에서 싸웠으나 패전하였다.]¹⁶⁰⁾ [정사일] 明堂을 중수하여 완성하였다.¹⁶¹⁾

15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증성 원년 7월 조, 95쪽.

15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천책만세 원년 9월 조, 95쪽.

157) 『자치통감』 권205, 천책만세 원년 10월 조, 6503쪽.

15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납월 조에서는 10일 간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96쪽).

159) 『자치통감』 권205, 만세등봉 원년 1월 조, 6504쪽.

16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3월 조, 96쪽. 『자치통감』 권205, 만세등봉 원년 3월 조, “壬寅, 王孝傑 · 婁師德與吐蕃將論欽陵贊婆戰於素羅汗山,

[萬歲通天 원년(696)] 여름 4월¹⁶²⁾ 친히 명당에 제사를 지내고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연호를 萬歲通天으로 고치고 大酺 7일을 베풀었다. 천하에 큰 가뭄이 들어 9품 이상의 문무관원에게 명하여 국정에 대한 득실을 極言하게 하였다.

[大食이 師子를 바치겠다고 청하였다.]¹⁶³⁾

5월 [임자일] 營州城傍의 契丹首領 松漠都督 李盡忠과 그 妻兄 歸誠州刺史 孫萬榮이 都督 趙文翽를 살해하고 군대를 일으켜 反하여 營州를 공격해 함락시켰다.¹⁶⁴⁾ 이진충이 스스로 可汗이라 하였다.¹⁶⁵⁾ 을축일 鷹揚將軍 曹仁師·右金吾大將軍 張玄遇·右武威大將軍 李多祚·司農少卿 麻仁節등 28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가을 7월 [신해일] 명령을 내려 春官尚書·梁王 [武]三思를 安撫大使

[호삼성 주: 據婁師德傳, 素羅汗山在洮州界.] 唐兵大敗, 孝傑坐免爲庶人, 師德貶原州員外司馬. [考異曰, 新紀, 四月庚子貶師德, 而無免孝傑日. 新表, 三月壬寅孝傑免. 按實錄三月壬寅撫州火下言孝傑等敗, 蓋皆據奏到之日耳. 二人同罪, 貶必同時, 不容隔月, 不知果在何日. 今但依實錄, 因其軍敗, 終言貶官之事而已.] 師德因署移牒, 驚曰, '官爵盡無邪!' 既而曰, '亦善, 亦善'. 不復介意”(6504~6505쪽). 누사덕이 폄직된 일은 『신당서』에서는 4월 경자일로 전한다(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4월 조, 96쪽).

16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3월 조, 96쪽.

162) 『신당서』와 『자치통감』에서는 만세통천으로 개원한 일이 3월 정사일로 전한다. 4월에는 정사일이 없으므로 3월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3월 조, 96쪽; 『자치통감』 권205, 만세등봉 원년 3월 조, 6505쪽.

163)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원년 3월 조, “大食請獻師子. 姚璠上疏, 以爲, '師子專食肉, 遠道傳致, 肉既難得, 極爲勞費. 陛下鷹犬不蓄, 漁獵悉停, 豈容菲薄於身而厚給於獸! 乃卻之'”(6505쪽).

16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5월 조, 96쪽;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원년 5월 조, 6505쪽.

165) 스스로 가한이라 칭한 것은 『자치통감』에 의하면 같은 해 7월의 일이다. 7월 조의 각주 참조.

로 삼고, 納言 姚壽을 부장(副)으로 삼았다. 제서를 내려 李盡忠을 盡滅로 고치고 손자 萬榮을 萬斬으로 고쳤다.¹⁶⁶⁾

가을 8월 [정유일] 張玄遇·曹仁師·麻仁節이 李盡忠과 西硤石 黃驪谷에서 싸워 官軍이 패배하고, 장현우와 마인절은 모두 적에게 사로잡혔다.¹⁶⁷⁾

9월 [경자일] 명령을 내려 右武衛大將軍·建安王 [武]攸宜를 大總管으로 삼아 거란을 토벌하게 하였다.¹⁶⁸⁾ 并州長史 王方慶이 鸞臺侍郎이 되고 殿中監 李道廣과 함께 모두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¹⁶⁹⁾ [정사일] 토번이 涼州를 침략하여 都督 許欽明이 적에게 잡혀갔다.¹⁷⁰⁾ [허흠명

166) 삼사를 榆關道安撫大使로 삼아 거란에 대비하게 한 것이다. 『신당서』 권4, 측천 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7월 조, 96쪽.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원년 7월 조, “以春官尚書梁王武三思爲榆關道安撫大使, [호삼성 주: 榆關在勝州界, 與突厥接, 非所以備契丹也. 營州城西四百八十里, 有榆關守捉城, 所謂臨渝之險也.] 姚壽副之, 以備契丹. 改李盡忠爲李盡滅, 孫萬榮爲孫萬斬, [호삼성 주: 武后改突厥骨咄祿爲不卒祿, 又改李盡忠爲李盡滅, 孫萬榮爲孫萬斬, 此事何異王莽所爲, 顧有成敗之異耳.] 盡忠尋自稱無上可汗, 據營州, 以萬榮爲前鋒, 略地, 所向皆下, 旬日, 兵至數萬, 進圍檀州, [호삼성 주: 檀州本漢漁陽郡麗奚縣地, 舊置玄州, 後周改爲玄州, 隋開皇十六年置檀州.] 清邊前軍副總管張九節擊卻之”(6506쪽).

16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8월 조, 96쪽;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원년 8월 조, 6506~6507쪽.

16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9월 조, “同州刺史武攸宜爲清邊道行軍大總管, 以擊契丹”(96쪽).

169) 이 일은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9월 조, 96쪽에서는 경신 일의 사건으로 정사일 토번의 침략보다 뒤의 일이다.

170) 『자치통감』에서는 돌궐이 공격하여 사로잡혔다고 전하고, 『신당서』에서는 토번이 공격하여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9월 조, “吐蕃寇涼州, 都督許欽明死之”(96쪽);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원년 9월 조, “突厥寇涼州, 執都督許欽明. [考異曰, 實錄云, ‘吐蕃寇涼州, 都督許欽明爲賊所殺.’ 按明年正月默啜啜靈州, 以欽明自隨. 又默啜將襲孫萬榮, 殺欽明以祭天. 實錄云吐蕃, 誤也.] 欽明, 紹之曾孫也. 時出按部, 突厥數萬奄至城下, 欽明拒戰, 爲所虜”(6507쪽). 허흠명이 돌궐에게 살해 된 것은 다음 해 6월의 일이다. 돌궐에 잡힌 허흠명에 관한 일은 『자치통감』 권206, 만세통천 2년 정월 조, 6512쪽 및 6월 조, 6521~6522쪽 참조.

의 형 欽寂은 당시 龍山軍討擊副使였는데, 거란과 崇州에서 싸웠으나 군대가 패전하여 사로잡혔다. 오랑개[虜]가 장차 安東을 포위하려 하자 허흠적에게 그에 속한 성 중에 아직 함락되지 않은 성들을 유세하게 하였다. 安東都護 裴玄珪가 성 안에 있었는데, 허흠적이 말하길 ‘狂賊은 하늘이 재앙으로 여기니 멸망하는 것은 조석간의 일일 것이다. 공께서는 다만 병사들을 격려하고 삼가 지키면서 忠節을 온전히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오랑개가 그를 살해하였다.]¹⁷¹⁾ [토변이 다시 사신을 보내 和親을 청하니 太后는 右武衛曹參軍 貴鄉 [사람인] 郭元振을 보내 가서 그 마땅함을 살피도록 하였다. 토변 장수 論欽陵이 安西四鎮의 戍兵을 철수하고 아울러 十姓 突厥의 땅을 나누자고 요청하였다. ……]¹⁷²⁾ 경신일 王方慶이 鳳閣侍郎이 되고 이에 예전대로 政事를 담당하였다. [돌궐 목철이 태후의 아들이 되고 아울러 그 딸을 위해 求昏하고 河西의 降戶를 모두 돌려 보내고 그 부락을 이끌고 국가(즉 武周)를 위해 거란을 토벌하겠다고 청하였다. ……]¹⁷³⁾ 이진멸이 죽고 그 무리의 손자 孫萬斬이 그 무리를 대신 통솔하였다.

겨울 10월 [신묘일] 孫萬斬이 冀州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刺史 陸寶積를 죽였다.¹⁷⁴⁾

11월 [손만참이] 또 瀛州의 屬縣을 함락하였다.

171)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원년 9월 조, “欽明兄欽寂, 時爲龍山軍討擊副使, 與契丹戰於崇州, [호삼성 주: 龍山, 即慕容氏和龍之山也. 崇州, 奚州也. 武德五年, 分饒樂都督府之可汗部置, 貞觀三年, 徙治營州之廢陽師鎮.] 軍敗, 被擒. 虜將圍安東, 令欽寂說其屬城未下者. 安東都護裴玄珪在城中, [호삼성 주: 高宗總章元年置安東都護府於平壤城. 上元元年, 徙遼東郡故城. 儀鳳二年又徙新城. 開元二年徙平州. 天寶二年徙遼西故郡城. 疑此時已徙平州. 宋白曰: 營州東南二百七十里有望定軍, 舊安東都護府.] 欽寂謂曰, ‘狂賊天殃, 滅在朝夕, 公但勵兵謹守以全忠節’. 虜殺之.”(6508쪽).

172)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원년 9월 조, 6508~6509쪽.

173)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원년 9월 조, 6509~6510쪽.

17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원년 10월 조, 96쪽.

[萬歲通天] 2년(697) [정월 초하루 기해일] 친히 명당에 제사를 지냈다.¹⁷⁵⁾ 鳳閣侍郎 李元素·夏官侍郎 孫元亨이 碁連耀의 謀反에 연루되어 주살되었다[伏誅]. [계해일 돌궐 목철이 勝州를 침략하여 平狄軍副使 安道買가 패전하였다.]¹⁷⁶⁾ [갑자일] 原州都督府司馬 婁師德을 鳳閣侍郎·同鳳閣鸞臺平章事로 삼았다.¹⁷⁷⁾

봄 2월 王孝傑·蘇宏暉 등이 군대 18만을 이끌고 손만참과 硤石谷에서 싸웠는데, 왕의 군대가 패배하여 왕효걸이 진영에서 전사하고 소굉휘는 패전[棄甲]하여 달아났다.¹⁷⁸⁾

여름 4월 [무진일] 九鼎을 주조해 완성하여 明堂의 뜰에 두고, [계유일] 이전 益州大都督府長史 王及善을 內史로 삼았다.¹⁷⁹⁾ [계미일 右金吾衛大將軍 武懿宗을 神兵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右豹韜衛將軍 何迦密과 함께 거란을 공격하게 하였다.]¹⁸⁰⁾

5월 [계묘일] 명을 내려 右金吾大將軍·河內王 [武]懿宗을 大總管에, 右肅政御史大夫 婁師德을 副大總管에, 右武威衛大將軍 沙吒忠義를 前軍總管에 임명하여 군대 20만을 이끌고 손만참을 토벌하게 하였다.¹⁸¹⁾

175) 『자치통감』 권205, 만세통천 2년 정월 조, 6512쪽.

17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정월 조, 97쪽.

17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정월 조, 97쪽.

178) 왕효걸이 패전하여 사망한 일은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3월 조에서 경자일로 전한다(97쪽). 이 일은 『자치통감』에서 3월 무신일의 것으로 전한다. 『자치통감』 권206, 만세통천 2년 3월 조, “戊申, 清邊道總管王孝傑·蘇宏暉等將兵十七萬與孫萬榮戰于東硤石谷, 唐兵大敗, 孝傑死之. 孝傑遇契丹, 帥精兵爲前鋒, 力戰. 契丹引退, 孝傑追之, 行背懸崖. 契丹回兵薄之, 宏暉先遁, 孝傑墜崖死, 將士死亡殆盡. [考異曰, 朝野僉載云, ‘孝傑將四十萬眾, 被賊誘退, 逼就懸崖, 漸漸挨排, 一一落間, 坑深萬丈, 尸與崖平, 匹馬無歸, 單兵莫返’. 張鷟語事多過其實, 今不盡取.] 管記洛陽張說馳奏其事. 太后贈孝傑官爵, 遣使斬宏暉以徇. 使者未至, 宏暉以立功得免”(6514~6515쪽).

17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4월 조, 97쪽.

18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4월 조, 97쪽.

6월 [정묘일] 內史 李昭德·司僕少卿 來俊臣이 죄로 주살되었다.¹⁸²⁾
 [갑오일] 손만참이 그 家奴에게 살해되어 餘黨이 크게 무너졌다.¹⁸³⁾ [무
 자일] 魏王 [武]承嗣·梁王 [武]三思가 모두 同鳳閣鸞臺三品가 되었
 다.¹⁸⁴⁾

가을 8월 納言 姚壽가 益州大都督府長史가 되었다.¹⁸⁵⁾

[神功 원년(697)] 9월 [임인일] 契丹 李盡滅 등을 평정하여 천하에 大
 赦를 내리고 연호를 고쳐 神功으로 하고 大酺 7일을 베풀었다.¹⁸⁶⁾ [경술
 일] 婁師德이 納言이 되었다.¹⁸⁷⁾

겨울 (윤?)10월 [갑인일] 전임 幽州都督 狄仁傑이 鸞臺侍郎, 司刑卿
 杜景儉이 鳳閣侍郎이 되고 모두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¹⁸⁸⁾

18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5월 조, 97쪽.

18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6월 조, “殺監察御史李昭德·司僕少卿來俊臣”(97쪽).

183) 『자치통감』 권206, 무측천 만세통천 2년 6월 조, “萬榮之破王孝傑也, 於柳城西北四百里依險築城, 留其老弱婦女, 所獲器仗資財, 使妹夫乙冤羽守之, 引精兵寇幽州. 恐突厥啜襲其後, 遣五人至黑沙, 語默啜曰, ‘我已破王孝傑百萬之眾, 唐人破膽, 請與可汗乘勝共取幽州’ …默啜乃殺前三人而賜二人緋, 使爲鄉導, 發兵取契丹新城, 殺所獲涼州都督許欽明以祭天; 圍新城三日, 克之, [胡三省注: 新城, 即前契丹所築, 在柳城西北者.] 盡俘以歸, 使乙冤羽馳報萬榮. 時萬榮方與唐兵相持, 軍中聞之, 恟懼. 奚人叛萬榮, 神兵道總管楊玄基擊其前, 奚兵擊其後, 獲其將何阿小. 萬榮軍大潰, 帥輕騎數千東走. 前軍總管張九節遣兵邀之於道, 萬榮窮蹙, 與其奴逃至潞水東, 息於林下, 嘆曰, ‘今欲歸唐, 罪已大. 歸突厥亦死, 歸新羅亦死, 將安之乎!’ 奴斬其首以降, 梟之四方館門. 其餘眾及奚·靺皆降於突厥”(6521~6522쪽).

18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6월 조, 97쪽.

18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만세통천 2년 8월 조, “丙戌, 姚壽罷”(98쪽).

18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신공 원년 9월 조, 98쪽.

18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신공 원년 9월 조, 98쪽.

18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신공 원년 윤10월 조, 98쪽; 『자치통감』 권206, 무측천 신공 원년 윤10월 조, 6524쪽.

聖曆 원년(698) 정월 [갑자일]¹⁸⁹⁾ 친히 明堂에 제사지내고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연호를 고치고 大酺 9일을 베풀었다.

봄 3월 [기사일] 房州에서 廬陵王 [李]哲을 불렀다.¹⁹⁰⁾

여름 5월 [경오일] 천하에 屠殺을 금지하였다.¹⁹¹⁾ 突厥 默啜이 上言하여 자녀로 和親을 청하였다.

가을 7월 淮陽王 武延秀로 하여금 돌궐로 가서 목철의 자녀에게 장가들어 [그녀를] 妃로 삼게 하였다. 右豹韜衛大將軍 閻知微를 파견하여 春官尚書를 임시로 담당시켜[攝] 돌궐의 조정[虜庭]으로 가게 하였다.¹⁹²⁾

8월 [무자일] 돌궐 목철이 무연수가 당 황실[唐室]의 諸王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별처에 가두어 군대를 이끌고 閻知微와 함께 媯[州]와 檀[州] 등을 침입하였다.¹⁹³⁾ [경자일] 司屬卿 高平王 [武]重規·右武威衛大將軍 沙吒忠義·幽州都督 張仁亶·右羽林衛大將軍 李多祚 등에게 명하여 군대 20만을 이끌고 반격[逆擊]하게 하자¹⁹⁴⁾ [돌궐이] 무연수를 풀어주어 돌려보냈다. 기축일 목철이 定州를 공격하여 함락하시키자 刺史 孫彥高가 전사하고 百姓의 廬舍를 불태우니 해를 입은 자가 수 천 명이였다.¹⁹⁵⁾

18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정월 조, 98쪽.

19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3월 조, 98쪽. 기사일 여릉왕을 불러 무자일 방주에서 도착하였다.

19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5월 조, 98쪽.

192) 『자치통감』 권206, 무측천 성력 원년 6월 조, “甲午, 命淮陽王武延秀入突厥, 納默啜女爲妃. 豹韜衛大將軍閻知微攝春官尚書, 右武衛郎將楊齊莊攝司賓卿, 齎金帛巨億以送之. 延秀, 承嗣之子也. 鳳閣舍人襄陽張柬之諫曰, ‘自古未有中國親王娶夷狄女者.’ 出爲合州刺史”(6530쪽). 『자치통감』에서는 돌궐과의 화친이 6월 갑오일로 전한다.

19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8월 조, “突厥寇邊, 戊子, 左豹韜衛將軍閻知微降于突厥, 寇邊”(98쪽); 『자치통감』 권206, 성력 원년 8월 조, 6530~6532쪽.

194) 『자치통감』 권206, 성력 원년 8월 조, 6533쪽.

195) 기축일은 8월 1일이다. 순서상 기축이 오류이거나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

魏王 [武]承嗣가 졸하였다. 경자일 梁王 [武]三思가 內史, 狄仁傑이 納言이 되었다.

9월 [갑자일] 建昌王 [武]攸寧이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¹⁹⁶⁾ [무진일] 목철이 趙州를 공격하여 함락시켜 [趙州]刺史 高叡이 살해되었다.¹⁹⁷⁾ 병자일 廬陵王 [李]哲을 皇太子로 삼아 예전대로 이름을 顯으로 하게 하고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大酺 5일을 베풀었다.¹⁹⁸⁾ [무인일] 명령을 내려 納言 狄仁傑을 河北道行軍元帥로 삼았다.¹⁹⁹⁾ 신사일 皇太子가 太廟에 배알하였다. 天官侍郎 蘇味道가 鳳閣侍郎·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계미일 목철이 침략한 趙[州]와 定州의 男女 만여 명을 살해하고 五迴道를 따라 떠났는데, 이르는 곳 마다 잔인하게 해를 입혀 이루다 기록할 수 없었다.²⁰⁰⁾

겨울 10월 夏官侍郎 姚元崇과 麟臺少監 李嶠가 모두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이 달에 閻知微가 돌궐을 배반하고 돌아와 일족[族]이 주살되었다.

된다.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8월 조에 의하면, 계축일 돌궐이 蔚州를 침략하였고, 을묘일 定州를 침략하여 정주자사 孫彥高가 사망하였다(99쪽). 『자치통감』에서도 계축일 돌궐이 울주의 속현인 飛狐를 침략하고, 을묘일에 정주를 침략하였다고 전한다(권206, 성력 원년 8월 조, 6533쪽).

19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9월 조, 99쪽.

19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9월 조, “戊辰, 突厥寇趙州, 長史唐波若降于突厥, 刺史高叡死之. 突厥寇相州, 沙吒忠義爲河北道前軍總管, 將軍陽基副之, 李多祚爲後軍總管, 大將軍富福信爲奇兵總管, 以禦之”(99쪽).

198) 이 일은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9월 조에서 임신일로 되어 있다(99쪽).

19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원년 9월 조에서는 갑술일 황태자를 河北道行軍元帥로 삼아 돌궐을 공격하게 하고, 무인일에 적인걸을 河北道行軍副元帥·檢校納言으로 삼았다고 한다(99쪽). 또한 적인걸은 다음달 10월 계묘일에 河北道按撫大使가 되었다(上同).

200) 『자치통감』 권206, 성력 원년 9월 조, 6535쪽.

[성력 연간(698~700) 초에 左鷹揚衛大將軍으로 승진[進]시키고 다시 忠誠國王으로 봉하고 安東의 옛 部를 통할하게 하였으나 (고보원이) 가지 않았다].²⁰¹⁾

[성력] 2년(699) 봄2월[정월 임술일] 皇嗣 [李]트을 相王에 封하였다.²⁰²⁾ 처음으로 寵臣 張易之 및 그 동생 昌宗을 控鶴府官員으로 두고 이윅고 [공학부를] 奉宸府로 고치고 반열을 御史大夫의 아래에 두었다.²⁰³⁾ [납월 무자일] 左肅政御史中丞 魏元忠이 鳳閣侍郎, 吉頊이 天官侍郎이 되고 모두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²⁰⁴⁾ [신해일 황태자에게 武氏 성을 하사하고 大赦를 내렸다.]²⁰⁵⁾ 무자일[2월 기축일?] 嵩山에 행차하여 王子晉廟에 이르러 배알하였다.²⁰⁶⁾ 병신일 緱山에 행차하였다. 정유일 嵩山에서 돌아왔다.

[당에 사신을 보내 조회하고 방물을 바쳤다].²⁰⁷⁾

여름 4월 吐蕃 大論 贊婆가 도망쳐 왔다.²⁰⁸⁾ [임진일 魏元忠을 檢校并州大都督府長史·天兵軍大總管으로 삼고, 婁師德을 副로 삼아 돌궐에

201) 『삼국사기』 권10, 고구려본기, 성력 연간 조, “至聖曆初, 進左鷹揚衛大將軍, 更封忠誠國王, 賜統安東舊部, 不行”.

20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2년 정월 조, 99쪽.

203) 『신당서』 권76, 后妃上, 高宗則天武皇后傳, “久視初, 以控鶴監爲天驥府, 又改奉宸府, 罷監爲令, 以左右控鶴爲奉宸大夫, 易之復爲令”(3484쪽). 奉宸府로 고친 일은 구시 초의 일로 전한다.

20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2년 납월 조, 99쪽.

20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2년 납월 조, 99쪽.

206) 『자치통감』 권206, 성력 2년 2월 조, 6539쪽.

207) 『삼국사기』 권8, 효소왕 8년 2월 조, “遣使朝唐, 貢方物”.

208) 『자치통감』 권206, 성력 2년 4월 조, “贊婆帥所部千餘人來降, 太后命左武衛鎧曹參軍郭元振與河源軍大使夫蒙令卿將騎迎之, 以贊婆爲特進·歸德王”(6539~6540쪽). 토번의 찬파는 10월에 낙양에 이르러 우위대장군에 임명되었다(『자치통감』 권206, 성력 2년 10월 조, 6542쪽).

대비하게 하였다. 신축일 누사덕을 隴右諸軍大使로 삼았다.]²⁰⁹⁾

가을 7월 황제가 春秋가 많아[高] 皇太子·相王과 梁王 武三思·定王 武攸寧 등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明堂에서 誓文을 작성[立]하게 하였다. [병진일 吐谷渾 部落 1천 400帳이 內附하였다.]²¹⁰⁾

8월 [계사일 突騎施 烏質勒이 그 아들 遮弩를 보내 入見하니, 侍御史 元城 [사람] 解琬을 보내 烏質勒 및 十姓部落을 안무하게 하였다.]²¹¹⁾ [경자일]²¹²⁾ 王及善이 文昌左相, 豆盧欽望이 文昌右相이 되고 이에 모두 同鳳閣鸞臺三品가 되었다.

겨울 10월 을해일 福昌縣에 행차하였다. 王及善이 흥거하였다.

[성력] 3년(700) 정월 무인일 梁王 [武]三思는 特進이 되고, 天官侍郎 吉頊은 嶺表에 配流되었다.²¹³⁾

납월 신사일 皇太子의 아들 [李]重潤을 邵王에 封하였다. [경인일 阿史那斛瑟羅를 平西軍大總管으로 삼았다.]²¹⁴⁾ [정유일] 狄仁傑이 內史가 되었다.²¹⁵⁾ 무인일 汝州의 溫湯에 행차하였다. 갑술일 온탕에서 돌아왔다. 嵩山에 三陽宮을 축조하였다.

봄 3월 李嶠을 鸞臺侍郎으로 삼아 예전과 같이 政事를 주재하게 하였다. [계축일 夏官尚書 唐奉一을 天兵中軍大總管으로 삼아 돌궐을 대비하게 하였다.]²¹⁶⁾

20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2년 4월 조, 100쪽.

210) 『자치통감』 권206, 성력 2년 7월 조, 6540쪽.

211) 『자치통감』 권206, 성력 2년 8월 조, 6540쪽.

21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2년 8월 조, 100쪽.

21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3년 정월 조에서는 무오일 吉頊이 琰川尉로 폄직되고, 임신일 武三思가 파직된 것으로 되어 있다(100쪽).

21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3년 납월 조, 100쪽.

21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3년 납월 조, 100쪽.

여름 4월 무신일 三陽宮에 행차하였다.

[久視 원년(700)] 5월 [기유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²¹⁷⁾ 계축일 황제가 병이 들었다가 건강을 회복하여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연호를 久視로 고치고 金輪 등의 존호 사용을 그만두고 大酺 5일을 베풀었다.²¹⁸⁾

6월 魏元忠이 左肅政御史大夫가 되어 예전대로 政事를 주재하였다.

이 해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다.

가을 7월 [含樞殿에서 헌부례를 하였다.]²¹⁹⁾ [윤7월 무인일] 三陽宮에서 돌아왔다.²²⁰⁾ [기축일] 天官侍郎 張錫이 鳳閣侍郎 · 同鳳閣鸞臺平章事に 임명되고 그 甥인 鳳閣鸞臺平章事 李嶠가 成均祭酒가 되어 政事의 주재를 그만두었다.²²¹⁾ [정유일 吐蕃이 涼州를 침략하자 隴右諸軍州大使 唐休璟이 洪源谷에서 격파하였다.]²²²⁾ 임인일 제서를 내렸다.

隋 尚書省 楊素는 옛날 本朝(즉 隋)에서 일찍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사특한 덕을 받고 아침하는 재주를 지녀 임금을 미혹시켜 어지럽히고 骨肉을 이간질하였다. 적장자[冢嫡, 즉 楊勇]을 흔들어 掘蟲의 회²²³⁾를 만들어냈을

21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성력 3년 3월 조, 100쪽.

21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구시 원년 5월 조, 101쪽.

21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구시 원년 5월 조, 101쪽.

219) 『자치통감』 권207, 구시 원년 7월 조, “獻俘於含樞殿。[호상삼 주: 李樞固獻契丹之俘也。含樞殿蓋在三陽宮。] 太后以樞固爲左玉鈐衛大將軍·燕國公, 賜姓武氏, 召公卿合宴, 舉觴屬仁傑曰, ‘公之功也’. 將賞之, 對曰, ‘此乃陛下威靈, 將帥盡力, 臣何功之有!’ 固辭不受”(6548쪽).

220) 『자치통감』 권207, 구시 원년 윤7월 조, 6548쪽.

221) 『자치통감』 권207, 구시 원년 윤7월 조, 6548쪽.

22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구시 원년 윤7월 조, 101쪽.

223) 태자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한 무제가 병이 들었을 때 江充이 오동나무로 만든 인형을 태자궁에 묻어 두고서, 무제에게 무제의 병이 저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 뒤 태자궁에서 그 인형을 파내 당시 태자인 戾太子를 무함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漢書』 권45, 江充傳.

뿐 아니라, 後主(즉 楊廣)를 유혹하여 끝내 請蹕의 허물²²⁴⁾을 만들어냈는가. 수 왕실이 멸망하자 대개 편벽함이 많아져 그 징조를 찾았으니 오직 이(楊素)로부터 연유하였다. 살아서는 不忠한 사람이었고 죽어서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으니 자신은 비록 다행히 [화를] 면하였으나 자손은 끝내 주살되었다. 이는 간악한 역도의 모함이 가훈이 되었고 險薄한 행실은 끝내 가풍을 형성하게 되었다. 형벌[刑戮]은 비록 더해졌으나 자손[枝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찌 따라 걷고 곁에서 모시게 하여 조정의 반열에 세우겠는가? 朕은 온갖 왕을 계승하여 삼가 四海를 다스려 위로는 어진 신하를 기리고 아래로는 악한 신하를 미워한다. 항상 조용히 만사를 처리하고 천년 이전에 대해 褒貶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양소의] 연대가 멀지 않고 보고들은 자가 남아있음에랴! 양소 및 그 형제 자손 이하는 모두 京官 및 侍衛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라.²²⁵⁾

[무후가 이후에 현성의 억울함을 알고서 右羽林衛大將軍으로 추증하고 예로써 다시 장사지내게 하였다].²²⁶⁾

[寅月을 정월로 복구하였다].²²⁷⁾

224) 弑逆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춘추 楚成王이 商臣에게 포위되었을 때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죽겠다고 요청한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春秋左傳』 문공 원년 10월 조, “(商臣)以宮甲圍成王, 王請食熊蹯而死, 弗听. 丁未, 王縊”.

225) 『당대조령집』 권114, 政事, 禁錮, 楊素子孫不得任京官敕 조, “隋尚書令楊素, 昔在本朝, 早荷殊遇, 稟凶邪之德, 懷詔佞之才, 惑亂君上, 離間骨肉, 搖動冢嫡, 寧唯掘蟲之禍, 誘扇後主, 卒成請蹕之變. 隋室喪亡, 蓋唯多僻, 究其萌兆, 職此之由, 生爲不忠之人, 死爲不義之鬼, 身雖幸免, 子竟族誅. 斯則奸逆之謀, 是其庭訓, 險薄之行, 遂成門風, 刑戮雖加, 枝胤仍在, 豈可復隨近侍. 齒列朝行, 朕接統百王, 恭臨四海, 上嘉賢佐, 下惡賊臣. 常欲從容於萬幾之餘, 褒貶於千載之外, 況年代未遠, 耳目所存者乎. 其楊素及兄弟子孫已下, 不得令任京官及侍衛. [聖曆三年五月]”; 『자치통감』 권207, 무측천 구시 원년 윤7월 조, 6549쪽; 『구당서』 권77, 楊元亨傳, 2675쪽.

226) 『삼국사기』 권49, 현성전, “後後知其寃, 贈右羽林衛大將軍, 以禮改葬”.

[8월 경술일 魏元忠을 隴右諸軍州大總管로 삼아 토번을 공격하게 하였다.]²²⁸⁾ [阿悉吉薄露가 叛하자 左金吾將軍 田揚名·殿中侍御史 封思業을 보내 토벌하게 하였다. 군대가 碎葉에 이르렀는데 박로가 밤에 성 옆에서 빠르게 약탈하고 떠나자 봉사업이 기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으나 도리어 패하였다. 전양명이 西突厥 斛瑟羅의 무리를 이끌고 그 성을 공격하였으나 열흘 남짓이 되도록 함락하지 못하였다.]²²⁹⁾

9월 [박로가 거짓으로 투항하였는데 봉사업이 그를 꺾어 참수하고 마침내 그 무리를 사로잡았다.]²³⁰⁾ [신축일] 內史 狄仁傑이 졸하였다.²³¹⁾

겨울 10월 [신해일 魏元忠을 蕭關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돌궐을 대비하게 하였다.]²³²⁾ 갑인일 옛 正朔[의 역법]으로 되돌려 1월을 정월로 고치고 이에 이를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정월은 예전대로 11월로 하고 천하에 大赦를 내렸다. 韋巨源이 地官尚書, 文昌左丞 韋安石이 鸞臺侍郎·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정묘일 新安[縣]에 행차하여 그 현에 曲赦를 내렸다. 임신일 신안현에서 돌아왔다.

12월 [갑인일 돌궐이 隴右를 침략하였다.]²³³⁾ [무오일] 도살 금지령을 없애 무릇[諸] 祠祭에서 예전대로 牲牢를 쓰게 하였다.²³⁴⁾

227) 『삼국사기』 권8, 효소왕 9년 조, “復以立寅月爲正”. 무측천은 이 해 10월에 정삭을 예전대로 복구하였다. 신라의 정삭 복구는 당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22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구시 원년 8월 조, 101쪽.

229) 『자치통감』 권207, 무측천 구시 원년 8월 조, 6550쪽. 阿悉吉薄露는 서돌궐 弩失畢 소속이다.

230) 『자치통감』 권207, 무측천 구시 원년 9월 조, 6550쪽.

23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구시 원년 9월 조, 101쪽.

23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구시 원년 10월 조, 101쪽.

23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구시 원년 12월 조, 101쪽.

234) 『자치통감』 권207, 무측천 구시 원년 12월 조, 6550쪽.

대초 원년(701) 봄 정월 [정축일] 제서를 내려 연호를 고쳤다.²³⁵⁾

2월 [기유일] 鸞臺侍郎 李懷遠을 同鳳閣鸞臺平章事로 삼았다.²³⁶⁾

3월 姚元崇이 鳳閣侍郎이 되어 예전대로 政事를 주재하였다. 병신일 鳳閣侍郎 張錫이 장죄에 저촉되어[坐贓] 循州로 유배[配]되었다.

[4월 병오일 大赦를 내렸다. 계축일 姚元崇을 檢校并州以北諸軍州兵馬로 삼았다.]²³⁷⁾

여름 5월 [을해일] 三陽宮에 행차하였다. [정축일] 명령을 내려 左肅政御史大夫 魏元忠을 總管으로 삼아 돌궐에 대비하게 하였다. [병신일] 天官侍郎 顧琮同이 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²³⁸⁾

6월 [경신일] 夏官侍郎 李迥秀가 同鳳閣鸞臺平章事이 되었다.²³⁹⁾ 신미일 告成縣에 曲赦를 내렸다.²⁴⁰⁾

가을 7월 갑술일 三陽宮에서 돌아왔다.

[8월 돌궐 목철이 변경을 침략하니 安北大都護·相王을 天兵道元帥로 삼아 諸軍을 이끌고 공격하게 하였는데, 떠나기 전에 오랑캐들이 물러났다.]²⁴¹⁾

9월 [임신일]²⁴²⁾ 邵王 [李]重潤이 [張]易之에게 참소를 받아 자살[自死]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長安 원년(701)] 겨울 10월 [무신일 토번이 悉州를 침략하자 茂州都

23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대초 원년 정월 조, 101쪽.

23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대초 원년 2월 조, 102쪽.

23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대초 원년 4월 조, 102쪽.

23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대초 원년 5월 조, 102쪽.

23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대초 원년 6월 조, 102쪽.

24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대초 원년 6월 조, “赦告成縣”(102쪽). 『신당서』에 서는 ‘赦’라고 기록하였다.

238) 『자치통감』 권207, 대초 원년 8월 조, 6556쪽.

24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대초 원년 9월 조, 102쪽.

督 陳大慈가 이를 패배시켰다.]²⁴³⁾ [신유일] 京師에 행차하여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연호를 長安으로 고쳤다.²⁴⁴⁾

[장안] 2년(702) 봄 정월 돌궐이 鹽[州]·夏[州] 등의 주를 침략하여 人吏를 살해하고 약탈하였다.

[3월 경인일 돌궐이 并州를 침략하여 雍州長史 薛季昶를 持節·山東防禦大使로 삼아 대비하게 하였다.]²⁴⁵⁾

[4월 幽州刺史 張仁愿을 專知幽·平·鎮·檀防禦로 삼고, 이에 설계 창과 서로 알리며 돌궐을 막게 하였다.]²⁴⁶⁾

[(5월) 을미일 相王을 并州牧으로 삼고 安北道行軍元帥에 충임하고, 魏元忠을 副로 삼았다.]²⁴⁷⁾

[聖德王이 즉위하였다. 諱는 興光이다. 본명은 隆基였는데, [당] 玄宗과 이름이 같아 先天 연간에 고쳤다. 神文王의 둘째 아들이고, 효소왕의 同母弟이다. 효소왕이 흥거하였는데 아들이 없어 國人이 그를 세웠다. 당 측천무후는 효소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애도하고 이 틈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아울러 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그 형이 가졌던 장군과 都督의 칭호를 이어받게 하였다.]²⁴⁸⁾ [7

24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원년 10월 조, 103쪽.

24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원년 10월 조, “辛酉, 大赦, 改元, 給復關內三年, 賜酺三日”(102쪽).

24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2년 3월 조, 102~103쪽.

246) 『자치통감』 권207, 장안 2년 4월 조, 6558쪽.

247) 『자치통감』 권207, 장안 2년 5월 조, 6559쪽.

248) 『삼국사기』 권8, 성덕왕 원년 조, “聖德王立. 諱興光. 本名隆基, 與玄宗諱同, 先天中改焉. [原註; 唐書言, 金志誠] 神文王第二子, 孝昭同母弟也. 孝昭王薨, 無子, 國人立之. 唐則天聞孝昭薨, 爲之舉哀, 輟朝二日, 遣使吊慰, 冊王爲新羅王, 仍襲兄將軍·都督之號.” 효소왕 사망이 7월(효소왕 11년 7월 조)이므로 9월 조의 앞에 두었다. 효소왕의 사망 기록은 『구당서』 권199상, 신라국전에서는 “理

월 갑오일 돌궐이 代州를 침략하였다.]²⁴⁹⁾

가을 9월 을축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는데 [태양이] 다 사라지지 않아 갈고리를 닮았고 京師 및 四方에서 이를 보았다.²⁵⁰⁾ [임신일 돌궐이 忻州를 침략하였다.]²⁵¹⁾ [기묘일 토번이 화해를 청하였다.]²⁵²⁾

겨울 10월 日本國이 사신을 보내어 方物을 조공하였다. [무신일 토번이 悉州를 침략하여 茂州都督 陳大慈가 패배시켰다.]²⁵³⁾

11월 相王 [李]르을 司徒로 삼았다. 무자일 친히 南郊에 제사지내고 천하에 大赦를 내렸다.

[12월 갑오일 위원총을 安東道安撫使로 삼았다.]²⁵⁴⁾ [무신일 北庭都護府를 庭州에 설치하였다.]²⁵⁵⁾

[장안] 3년(703) [1월 당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²⁵⁶⁾ 봄 3월 임

洪以長安二年卒，則天爲之舉哀，輟朝二日，遣立其弟興光爲新羅王，仍襲兄將軍·都督之號。興光本名與太宗同，先天中則天改焉”(5337쪽)이라고 하여 장안 2년에 효소왕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고, 『자치통감』 권207, 무측천 장안 3년 윤4월 조에서는 “新羅王金理洪卒，遣使立其弟崇基爲王”(6562쪽)라고 하여 장안 3년의 일로 전한다.

24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2년 7월 조, 103쪽.

250) 『자치통감』 권207, 장안 2년 9월 조, “乙丑朔，日有食之，不盡如鉤，神都見其既”(6559쪽).

25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2년 9월 조, 103쪽.

252)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2년 9월 조, 103쪽. 『자치통감』 권207, 장안 2년 9월 조, “吐蕃遣其臣論彌薩來求和”(6560쪽).

25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2년 10월 조, 103쪽. 『자치통감』 권207, 장안 2년 10월 조, “吐蕃贊普將萬餘人寇茂州，都督陳大慈與之四戰，皆破之，斬首千餘級”(6560쪽).

25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2년 12월 조, 103쪽.

255) 『자치통감』 권207, 장안 2년 12월 조, 6561쪽.

256) 『삼국사기』 권8, 성덕왕 2년 정월 조, “遣使入唐，貢方物”. 1월로 되어 있으나 정삭을 원래대로 고쳤으므로 정월이 옳을 것이다.

술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²⁵⁷⁾

여름 4월 경자일 相王 [李]묘이 表를 올려 司徒를 사양하니 이를 허락 하였다. 文昌臺를 中臺로 고쳤다. 李嶠가 納言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토번이 와서 求婚하였다.]²⁵⁸⁾

[윤4월 新羅王 金理洪이 졸하여 사신을 보내 그 동생 崇基를 왕으로 세웠다.]²⁵⁹⁾

6월 [신유일 돌궐 목철이 그 신하 莫賀干을 보내 와 딸을 황태자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달라고 청하였다.]²⁶⁰⁾ 寧州에 비가 내려 山水가 갑자기 불어나 2천여 家가 漂流하고 佚사자가 1천여 명이었다.

가을 7월 [경술일] 右金吾大將軍 唐休璟을 살해하였다.²⁶¹⁾ [당시 突騎施 酋長 烏質勒이 西突厥 諸部和 서로 공격하여 安西로 가는 길이 끊겼다.]²⁶²⁾

257)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3년 3월 조, 103쪽.

25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3년 4월 조, 103쪽.

259) 『자치통감』 권207, 장안 3년 윤4월 조, 6562쪽.

260) 『자치통감』 권207, 장안 3년 6월 조, 6562쪽.

26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3년 7월 조, “庚戌, 檢校涼州都督唐休璟爲夏官尚書·同鳳閣鸞臺平章事”(103쪽). 또한 『구당서』 권93, 唐休璟傳에서 당휴경이 예종 延和 원년에 졸하였다고 하여 피살된 일이 전하지 않는다. 본기의 이 구절은 아마도 오탈자인 듯 하다. 『자치통감』 권207, 장안 3년 7월 조에서는 경술일에 당휴경을 同鳳閣鸞臺三品으로 삼았다고 전한다(6562쪽).

262) 『자치통감』 권207, 장안 3년 7월 조, “時突騎施酋長烏質勒與西突厥諸部相攻, 安西道絕. 太后命休璟與諸宰相議其事, 頃之, 奏上, 上, 時掌翻. 太后即依其議施行. 後十餘日, 安西諸州請兵應接, 程期一如休璟所畫, 太后謂休璟曰, ‘恨用卿晚’. 謂諸宰相曰, ‘休璟練習邊事, 卿曹十不當一’. 時西突厥可汗斛瑟羅用刑殘酷, 諸部不服. 烏質勒本隸斛瑟羅, 號莫賀達干, 能撫其眾, 諸部歸之, 斛瑟羅不能制. 烏質勒置都督二十員, 各將兵七千人, 屯碎葉西北. 後攻陷碎葉, 徙其牙帳居之. 斛瑟羅部眾離散, 因入朝, 不敢復還. [호삼성 주: 天授元年書斛瑟羅入居內地, 神功元年書來俊臣誣陷斛瑟羅, 則其入朝必不在是年, 此因書烏質勒事敘其得國之由, 遂及斛瑟羅失國事耳.] 烏質勒悉併其地”(6562~6563쪽).

가을 9월 [경인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²⁶³⁾ 正諫大夫 朱敬則이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무신일 相王 [李]르이 雍州牧이 되었다. 이 달에 御史大夫 · 兼知政事 · 太子右庶子 魏元忠이 張昌宗에게 참소를 받아 端州 高要尉로 좌천[左授]되었다. 京師에 비와 우박이 크게 내려 얼어 죽은 사람과 가축이 있었다.

겨울 10월 병인일 어가[駕]가 神都로 돌아왔다. 을유일 京師로 돌아왔다.

[11월 돌궐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허락한 것을 감사하였다.]²⁶⁴⁾

[12월 병술일 천하에 關 30 곳을 설치하였다.]²⁶⁵⁾

[阿漚 金思讓을 보내 당에 조회하였다.]²⁶⁶⁾

[吐蕃의 남쪽 경계에 있는 諸部가 모두 叛하여 贊普 器弩悉弄이 스스로 공격하려 하였으나 軍中에서 졸하였다. 여러 아들이 왕위를 다투지자 오래되었는데 國人이 그 아들 棄隸踏贊을 세워 찬보로 삼으니 태어난 지 7년이였다.]²⁶⁷⁾

[장안] 4년(704) 봄 정월 [병신일 右武衛將軍 阿史那懷道를 책립하여 西突厥十姓可汗으로 삼았다. 회도는 곡슬라의 아들이다.]²⁶⁸⁾ [정미일] 壽安縣의 萬安山에 興泰宮을 축조하였다. [임자일] 天官侍郎 韋嗣立이 鳳閣侍郎 ·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²⁶⁹⁾ 朱敬則이 致仕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²⁷⁰⁾

26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3년 9월 조, 104쪽.

264) 『자치통감』 권207, 장안 3년 11월 조, 6568쪽.

265)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3년 12월 조, 104쪽.

266) 『삼국사기』 권8, 성덕왕 2년 조, “遣阿漚金思讓朝唐”.

267) 『자치통감』 권207, 장안 3년 是歲 조, 6569쪽.

268) 『자치통감』 권207, 장안 4년 정월 조, 6569쪽.

269)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4년 정월 조, 104쪽.

3월 [정해일] 平恩郡王 [李]重福을 譙王으로 進封하고, [기해일] 夏官侍郎 宗楚客을 同鳳閣鸞臺平章事로 삼았다.²⁷¹⁾ [당에 들어갔던 김사양이 돌아와 『最勝王經』을 바쳤다].²⁷²⁾

여름 4월 [임술일]²⁷³⁾ 韋安石이 納言의 일을 관장하였다. 李嶠가 內史의 일을 관장하였다. 병자일 興泰宮에 행차하였다.

6월 天官侍郎 崔玄暉이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고, 李嶠가 國子祭酒가 되어 政事를 관장하는 것이 예전과 같았다.²⁷⁴⁾

7월 병술일 楊再思가 內史가 되었다. 갑오일 興泰宮에서 돌아왔다. 宗楚客이 原州都督으로 좌천[左授]되었다.

8월 姚元崇이 司僕卿이 되어 政事를 관장하고, 韋安石이 檢校揚州大都督府長史가 되었다.²⁷⁵⁾ [경신일 唐休璟이 兼幽營二州都督·安東都護가 되었다].²⁷⁶⁾ [돌궐 목철이 이미 和親하고 나서 무인일 비로소 淮陽王 武延秀를 돌려 보냈다.]²⁷⁷⁾

겨울 10월 秋官侍郎 張柬之가 同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²⁷⁸⁾

27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4년 2월 조, “壬申, 朱敬則罷”(104쪽).

271)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4년 3월 조, 104쪽.

272) 『삼국사기』 권8, 성덕왕 3년 3월 조, “入唐金思讓迴, 獻最勝王經”.

27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4년 4월 조, 104쪽.

274)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4년 6월 조, “辛酉, 姚元之罷. 乙丑, 天官侍郎崔玄暉爲鸞臺侍郎·同鳳閣鸞臺平章事. 丁丑, 李嶠同鳳閣鸞臺三品. 壬午, 相王府長史姚元之兼知夏官尚書·同鳳閣鸞臺三品”(104쪽).

275) 『자치통감』 권207, 장안 4년 8월 조, “甲寅, 以安石兼檢校揚州刺史”(6573쪽).

276)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4년 8월 조, 104쪽. 『자치통감』 권207, 장안 4년 8월 조, “以休璟兼幽營都督·安東都護. 休璟將行, 密言於太子曰, ‘二張恃寵不臣, 必將爲亂. 殿下宜備之’”(6573쪽).

277) 『자치통감』 권207, 장안 4년 8월 조, 6573쪽.

278)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장안 4년 10월 조, “辛酉, 元之爲靈武道安撫大使. 甲戌, 判秋官侍郎張柬之同鳳閣鸞臺平章事. 壬午, 懷州長史房融爲正諫大夫·同鳳閣鸞臺平章事”(104쪽).

11월 李嶠가 地官尚書가 되고, 張柬之가 鳳閣鸞臺平章事가 되었다. 9월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흐리고 어두웠으며 큰 비와 눈이 내려 도성에 굶주리고 얼어 죽은 자가 있어 官司에 명령을 내려 창고를 열어 구제[賑給]하게 하였다.

神龍 원년(705) 봄 정월 [임오일 초하루] 大赦를 내리고 연호를 고쳤다. 황제가 편치 않아[不豫], 제서를 내려 文明 원년(684) 이후 죄를 지은 사람 중 揚·豫·博 세 州 및 모든 반역의 魁首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赦除]해 주었다.²⁷⁹⁾ 계해일(계묘일?) 麟臺監 張易之와 그 동생 司僕卿 [張] 昌宗이 謀反하여 皇太子가 左右羽林軍 桓彥範·敬暉 등을 이끌고 우림군 병사를 데리고 禁中으로 들어가 그들을 주살하였다.²⁸⁰⁾ 갑진일 황태자가 監國하여 조정의 일[萬機]을 총괄하고 천하에 大赦를 내렸다.²⁸¹⁾ [을사일] 이 날에 황제가 皇帝位를 황태자에게 전하고,²⁸²⁾ [병오일 황제(즉 중종)가 복위하였다.]²⁸³⁾ [정미일] 上陽宮으로 옮겨 거처하였다.²⁸⁴⁾

279) 『자치통감』 권207, 신룡 원년 정월 조, “壬午朔, 赦天下, 改元. [考異曰, 新紀, ‘長安五年, 正月, 壬午, 大赦. 甲子, 太子監國, 改元.’ 按則天實錄, ‘神龍元年, 正月, 壬午朔, 大赦, 改元.’ 舊紀·唐曆·統紀·會要皆同. 紀年通譜亦以神龍爲武后年號, 中宗因之. 新紀誤也.] 自文明以來, 得罪者非揚·豫·博三州及諸反逆魁首, 咸赦除之”(6578쪽).

280)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105쪽)와 『자치통감』(6579~6580쪽)에서는 계묘일로 전한다. 신룡 원년 정월에 계해일은 없고 계묘일이 있으므로 계묘일이 옳은 것이다.

281) 『자치통감』 권207, 신룡 원년 정월 조, 6581쪽. 태자감국제서는 『당대조령집』 권30, 監國, 則天太后命皇太子監國制 조, 111~112쪽 참조.

282) 『자치통감』 권207, 신룡 원년 정월 조, 6581쪽.

283) 『신당서』 권4, 측천황후본기, 신룡 원년 정월 조, 105쪽. 또한 『자치통감』 권207, 신룡 원년 정월 조, “丙午, 中宗即位. 赦天下, 惟張易之黨不原, 其爲周興等所枉者, 咸令清雪, 子女配沒者皆免之. 相王加號安國相王, 拜太尉·同鳳閣鸞臺三品, 太平公主加號鎮國太平公主. 皇族先配沒者, 子孫皆復屬籍, 仍量敍官爵”

무신일 황제가 존호를 則天大聖皇帝로 올렸다.

[3월에 사신을 보내 당에 들어가 조공하였다].²⁸⁵⁾ [9월 사신을 당에 보내 방물을 바쳤다].²⁸⁶⁾

겨울 11월 임인일 則天이 [병세가] 점점 심해져 遺制를 내려 [신주를] 종묘에 합사하고 건릉에 장사지내며[歸陵], 帝號를 없애고 則天大聖皇后라고 칭하게 하였다. 그 王·蕭 두 집안 및 褚遂良·韓瑗 등의 자손, 친족으로 당시에 緣累된 자는 모두 본업을 회복시켰다. 이 날 上陽宮의 仙居殿에서 봉어하니 83세였으며²⁸⁷⁾ 시호는 則天大聖皇后이다.

[신룡] 2년(706) [4월 사신을 보내 당에 들어가 방물을 바쳤다].²⁸⁸⁾ 5월 경신일 乾陵에 합장하였다. [唐隆 원년] 睿宗이 즉위하고 조서를 내려 上元 연간(674~676)의 故事에 의거하여 號를 天后라고 하고²⁸⁹⁾ [景雲 원년] 오래지 않아 大聖天后로 추존하고²⁹⁰⁾ 호를 則天皇太后로 고쳤다. 太后가 일찍이 文學之士 周思茂·范履冰·衛敬業을 불러 명령을 내려 『玄覽』·『古今內範』 각 100권, 『靑宮紀要』·『少陽政範』 각 30권, 『維城典訓』·『鳳樓新誡』·『孝子』·『列女傳』 각 20권, 『內範要略』·『樂書要錄』 각 10권, 『百僚新誡』·『兆人本業』 각 5권, 『臣軌』 2권, 『垂拱格』 4권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모두 文集 12권으로 秘閣에 수장하였다.²⁹¹⁾

(6581쪽).

284) 『자치통감』 권207, 신룡 원년 정월 조, 6582쪽.

285) 『삼국사기』 권8, 성덕왕 4년 3월 조, “遣使入唐朝貢”.

286) 『삼국사기』 권8, 성덕왕 4년 9월 조, “遣使如唐, 獻方物”.

287) 『자치통감』 권207, 신룡 원년 11월 조, 6596쪽에서는 82세로 전한다.

288) 『삼국사기』 권8, 성덕왕 5년 4월 조, “遣使入唐, 貢方物”.

289) 『자치통감』 권209, 唐隆 원년 6월 조, 6650쪽.

290) 『자치통감』 권210, 景雲 원년 10월 조, “乙未, 追復天后尊號爲大聖天后”(6656쪽).

291) 『太平御覽』 권601, 文部17, 著書上, “又曰, 天后自咸亨已後, 嘗召文學之士周思茂·范履冰等, 入禁中, 令撰……並藏於祕閣”.

[8월 당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²⁹²⁾

[겨울 10월 당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²⁹³⁾

史臣이 말한다. 治亂은 시대에 달려있고 存亡은 위세에 달려있다. 가령 桀과 紂가 윗자리에 있을 때에는 비록 10명의 堯라도 다스릴 수 없고, 가령 堯와 舜이 윗자리에 있을 때에는 비록 10명의 桀이라도 화란을 일으킬 수 없다. 겁쟁이[懦夫]와 女子가 때를 틈타 득세하니 역시 죽히 羣生의 命을 坐制하고 不義한 威를 멋대로 행하였다. 대저 武氏가 稱制한 해를 살펴보건대, 英才가 수레를 이을 정도였어도 [이씨의] 혈통이 막힌 것[家素]에 상심하고 조정의 위기에 분격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끝내 先帝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군주의 아들을 지킬 수 없었다. 이윽고 허물이 없어도 해를 입는 데에 이르자 목을 당겨 주살하였다. 天地가 [한] 바 구니가 되었는데 장차 어느 곳으로 가겠는가? 슬프도다! 옛날 코를 가리라는 참소는 옛날에도 독으로 일컬었고, 사람 돼지의 참혹함은 세상에서 원통하게 여겼다. 武后가 적자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모의할 때 목을 줄라[振喉] 襁褓의 아이를 죽이고 菹醢하여 왕황후[椒塗]의 뼈를 부셨으니, 역시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은 부인의 일반적인 행태이다. 그러나 널리 讜議를 취하고 때때로 정직한 사람을 예우하여 처음에는 비록 암탉이 새 벽을 알렸으나 끝내는 [이씨] 황가의 제위를 회복시켰다. 뜬 소문은 [魏] 元忠의 죄를 밝히고, 좋은 말은 [狄] 仁傑의 마음을 위로하였으며, 時憲을 존중하고 幸臣을 억제하였고 忠言을 들어주고 酷吏를 주살하였다. 有旨로다, 有旨로다!

贊하여 말한다. 요녀[龍嫫]²⁹⁴⁾가 모습을 바꾸어 태자를 丙殿(즉 別殿)

292) 『삼국사기』 권8. 성덕왕 5년 8월 조, “遣使入唐, 貢方物”.

293) 『삼국사기』 권8. 성덕왕 5년 10월 조, “遣使入唐, 貢方物”.

294) 용의 입에서 나오는 침에서 포사가 태어났고, 포사 때문에 西周가 망하였다는

에 이르게 하였다. 어찌 하늘이 이 역귀를 낳았는가? 황제 자리[神器]를 찬탈하고 황궁을 더럽혔다. 요물이 흰머리가 되도록 살았는데, 굶어 살핌이 어찌 이와 같은가?

것에서 여자가 나라의 재앙을 초래하거나 또는 나라의 재앙을 초래하는 여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